서울大同窓會報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http://www.snua.or.kr

2002년 1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86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발행인 金 在 淳/편집인 孫 一 根/편집주간 李 世 震/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지혜와 힘을 모아 높이 도약하자!

逸初 李澈周 作 「雄飛」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青林, 李炯均, 南仲九, 金鎭銅, 金好俊, 宋鎭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璨,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광고부장 金千鶴

신년인사

"고뇌를 뚫고 나가라 환희, 기쁨의 세계로"

서울대총동창회 金在淳회장

2002년 壬午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地球村 골고루 海內外에 계시는 20萬 서울大人 여러분의 건승을 축원하면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나라마다 새아침을 열면서 뉴 이어 콘서트(New Year Concert)의 막이 오르지요.

음악의 도시 비엔나(Vienna)에서는 비엔나 필이 연주하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으로 새해가 밝아집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으로 새아침을 여는 나라도 많습니다.

『기뻐하라, 하느님의 아름다운 불꽃, 우리를 맞이하라, 빛의 전당으로, 님의 거룩한 힘으로 굳게 맺은 착하고 자비로운 날개로, 온 인류는 모두가 형제이니…』

베토벤은 가난하고 몸이 약한 마치 苦惱 그 자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환희와 기쁨을 거절당한 바로 그가 스스로 기쁨을 창조했습니다. 기쁨을 온 세상 사람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베토벤이 남긴 말 한 토막을 서울大人 여러분에게 선사하면서 새해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뇌를 뚫고 나가라. 환희, 기쁨의 세계로』

서울大人들의 가정마다 넘버 나인의 「환희의 노래」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번영 위한 서울大人의 역할 막중"

서울대학교 李基俊총장

壬午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본인이 22대 총장직을 맡은 지도 3년이 지나 임기의 마지막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나간 한해에도 교수, 학생 및 교직원 모두는 여러분의 모교가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중심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선발제도의 개선, 학부교과과정 개편, 교수평가제도 도입과 연구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대학 운영체계 개편 등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그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적인 석학들을 Blue Ribbon Panel(최고 자문위원단)로 모셔 서울대의 현재와 바람직한 발전 방안에 대해 진단과 자문을 구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서울대가 우리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취약한 재정규모나 시설 면을 고려할 때 그동안의 연구 성과나 업적은 경이적이지만,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비교해 보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라는 격차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보고서는 서울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세계 유수 대학은커녕 국내의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에게도 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지적대로 여러분의 모교는 중대한 변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무한경쟁의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 창출의 원동력으로 재도약하지 못하면 세계무대에서 2류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보아도 베이징대와 청화대는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적어도 10년 이내에 세계 일류대학이 되고자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모교는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장기발전계획이 마련 될 것이며, 이 계획에는 서울대의 역사를 다시 열어 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것입니다.

이제 서울대 가족 모두의 대학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지원과 동문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은 더 없는 큰 힘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전개될 국제경쟁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서울대학교와 동문 여러분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할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의 모교가 힘차게 도약하는 시점에서 동문 여러분의 모교 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동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 요 목 차

▲건강을 지킵시다 ·····5면
申昌植 아로마·벨 피부과 원장
▲추억의 창 ·····5면
金順五 前경기여고 교장
▲지부 순례 ·····8면
미국 조지아 지부
▲기과 순례 ·····8면
응용화학부 동창회
▲동문을 찾아서 ·····9면
한국국제교류재단 李仁浩이사장
▲화제의 동문 ·····10면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魯仁煥동문
▲동문 기업 탐방 ·····11면
(주)코아텍
▲서울대 가족 ·····12면
건국대 李仁子교수
▲SNUA OPINION LEADER ··18면
徐榮俊 모교 약대 교수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21면
李鍾熏(李弘中동문 차남)

관악춘추

「문화 컨텐츠」를 창조하자

90년대 초반, 우리 사회는 북에서 망명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연일 흥분했던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무용수 출신의 부인과 함께 극적으로 이 땅을 밟은 엘리트 출신 북한 외교관이 있었다. 망명 직후, 그는 『평소 동경해 마지않던 자본주의 국가, 한국에 와서 잠재된 나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꼭 성공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런 그가 몇 해 후 이런 말을 남기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안면만이 통하는 안면주의 사회예요』 물론 그의 말에는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아무런 연고 없이 나 홀로 이 땅에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실감하게 한다.

자본주의란 합리주의를 전제로 한다. 「안면주의」란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사사로운 정리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안면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그가 지적하고 있는 「안면이 지배하는 사회」의 추악한 단면을 보는 것 같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식 사회에서는 줄대기 바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연줄로 엮어진 부패 사슬이 불거져 나온다. 무분별한 「끼리끼리」 의식의 폐해가 얼마나 깊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가를 알 수 있다.

흔히들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모래알에 비유한다. 타 대학 출신들보다 동문의식이 희박하고 소위 인맥으로 묶기에는 그 결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국에서도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실 역시 같은 고향 출신과 함께 안면 트기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첫 대면일지라도 금방 호형호제하는 대학 동창들도 있다. 서울대 출신들은 그런 점에서 곧잘 비교되기도 한다. 하지만 동창이라는 학연이 주는 결속력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인연을 얽어서 서로 뭉치기 편하도록 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학교와 동문들,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학연이라는 情으로 이루어진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같은 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밀어주고 당겨주는 끼리끼리의 결속은 아닐 것이다.

情에 의한 결속은 동창회라는 울타리 속으로 용해되고, 한정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 울타리를 벗어나 개인의 이해관계에 악용될 때, 우리들도 「안면주의」의 망령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동창회란 출신학교를 기반으로 동문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학연이란 집단질서에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어느 학교 동문회건 어떤 모임이나 연말 파티를 보면 비슷한 화제에 비슷한 형식으로 끝난다.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辛巳年이 저물고 壬午年이 왔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얻기 어렵다고 한다. 동문이라는 각별한 인연으로 총동창회라는 커뮤니티를 통해 동시대인으로서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컨텐츠를 향유하면서, 학교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우정을 나눌 생각은 없는가! 그런 점에서 유별나게 끼리끼리 뭉쳐서 배타적인 폐해가 없는 지나치게 학연에 기대지 않는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새해 동문회像을 기대해본다.

〈正〉

느티나무광장

취업률 높이기

올 2월 서울대 졸업예정자의 순수 취업률이 27.1%에 불과하다고 한다. 전체 졸업예정자 3천6백여 명 중 진로가 결정된 사람은 66%지만 대학원 진학 및 군입대자를 제외한 실제 취업자 수로 보면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률이 워낙 높은 탓이라고 하지만 기실 서울대 출신의 취업률은 90년대 말부터 계속 낮아졌다. 98년의 순수취업률은 30.7%, 99년엔 26.7%였다. 연말 한 일간지엔 98년 42.7%, 99년 39.8%, 2000년 32.9%, 2001년 33.5%로 보도됐지만 추이엔 별반 차이가 없다.

취업률이 이처럼 떨어지는 건 외환위기 이후 좀체 회복되지 않는 국내의 경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그 이유뿐일까」라는 물음엔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워 보인다. 어쩌면 서울대가 국내 최고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까닭이다.

서울대의 현재 수준은 미국의 중하위권 주립대 정도밖에 안된다는 「서울대 최고 자문위원단(블루리본패널)」의 평가는 이런 의문이 전혀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블루리본패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의 경우, 논문발표 실적은 엉망이면서도 정년 보장 비율은 세계 최고고, 총장 직선제 때문에 교수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학교 기금은 하버드대(2백7억달러)의 0.5%(1억1천3백만달러)에도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기대하는 건 누가 봐도 무리다. 재학생 89%가 학교 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한 것이나, 수업 외 하루 공부시간이 1시간 미만인 학생이 26%, 전혀 안하는 경우가 13%라는 조사 결과 또한 낮은 취업률이 반드시 경기침체 때문만은 아닐 수 있음을 일깨운다.

블루리본패널은 『대학운영의 효율화, 교육의 질 강화, 충분한 재원 마련 등 세 가지 과제가 달성되면 10~20년 뒤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최고라는 이름 값에 어느 정도는 걸맞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업률 문제는 그것만으론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서울대생의 취업률 하락 이면엔 졸업생의 눈높이가 높은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 일각의 서울대 출신 기피 현상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조차 CEO나 임원, 담당 간부에 따라 서울대생을 심정적으로 피하는 예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울대생이 못났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능력 있고 정확한 것 등 장점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은근히 고개를 돌리는 건 「참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선입견 때문이다.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알고 조금만 안 알아주는 듯 싶으면 서운해하거나 도망가 버린다는 것이다. 기껏 훈련을 시켜 놔도 작은 일에 상처받고 그만두거나 좀더 대우가 좋은 곳으로 옮기는 만큼 처음부터 뽑지 않는 게 낫다고 믿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물론 많은 서울대생이 졸업 후 「그것도 모르느냐」 식의 시선에 시달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역차별과 왕따, 은따도 당한다. 자존심 때문에 모르는 게 있어도 묻지 못하고 답답해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먼저 손내밀지 못하고 좌절하는 수도 흔하다.

朴 聖 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말처럼 좋은 대학만 나오면 괜찮은 직장과 삶이 보장되던 시대는 가고 없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스펜서 존슨)에서 보듯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면 모든 기득권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명분에 매여 있을 게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눈높이를 바꾸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서울대 죽이기에 앞장서는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먼저 손도 내밀어, 그들이 마음으로 서울대생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때 서울대와 서울대생 모두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본보 논설위원〉

동문칼럼

대통령 국민간담회 방식 개선해야

사회적 지위 유지를 위해 이기심이 앞서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분위기에서, 옳은 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고통과 외로운 길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회에 희망을 밝히는 영광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 지식과 정의사회 건설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그 존엄성과 행복추구를 위해 지식에 대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다재다능한 지식은 개인적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삶과 사회 번영과 안정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원동력이다. 지식의 힘은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켜 인간을 행복하게도 하고, 또 한편 불행을 만들기도 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서해 함정 교전에서의 작전 안전문제, 샤프린 유조선 좌초사고의 해양오염에 의한 멸치어장 파괴, 청소년 캠프장의 화재로 인한 인명손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식이 공공안전과 기술안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히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선진국 미국, 일본 등은 지식의 힘으로 정보화·자동화에 성공하여 신속·간편, 안정된 생활

선진국이 국가발전과 사회안정과 번영을 위해 확립한 지식의 힘, 즉 사회는 지식과 정의에 의해 지배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사회는 되새겨 들어야 한다

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공정·공평한 경쟁의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또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경제원칙 최소비용의 최대효과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일치하는 실사구시를 중요시한 결과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국가 신뢰도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선진국이 국가발전과 사회안정과 번영을 위해 확립한 지식의 힘, 즉 사회는 지식과 정의에 의해 지배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국 사회는 되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

『미래 세계는 지식의 세계』라고 처칠이 말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을 전제로 본인의 체험과 Mass Media로 보고들은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느낀 바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필자는 한국 정부가 지향 추구하는 국정목표, 즉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제고, 정보화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구조조정 등에 매료됐었다.

필자는 한국에 있을 때 해양관계 공무원이었음으로 해양환경보존, 선박해상 안전항해 증진과 해양업무 현대화, 어민소득 증대 및 권익보호, 국가재정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Real Time Chart 제작사용을 권고했었다. 그러나 한국식 전자해도는 수정보완 작업없이 간행되었고 그후 성능검증 및 그 성과, 향후 대책도 들을 수 없었다.

이 해도는 복잡 혼란성이 예상되었는데 역시 고비용 저효율, 정확성 결여에 따른 위험성, 사용의 복잡성, 고가로 수입한 외국 장비(Monitor) 등의 사장화를 낳고 말았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국가발전에 유익한 아이디어도 강력한 「줄」이 없으면 성능과 안전성, 경제효과 인정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술행정은 기술본위로 움직여야 한다. 형식과 적당주의가 팽배해서는 안된다. 한국의 행정이 지식의 힘을 존중하고 실사구시적인 기술위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력은 국가의 기간 동력자원으로 국민 실생활과 산업과 국가 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국가 동력이다.

한국은 최근 조력발전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소는 그 타당성이 낮다고 결론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력발전소 건설은 안전과 환경보존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타당성이 정당화될 수 없다. 전력생산력과 비용효과 면에서 타당성 충족이 의문이며, 더구나 전력사업 주무부서도 아닌 다른 부서에서의 조력발전소 검토조사는 본래의 궁극목적을 위한 사업지시인지 아니면 조사용역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방법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면에서 심각히 검토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국가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서 경제효과, 수요공급의 경제원칙에 따른 타당성을 위주로 한 예산지침과 예산관리운영 제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다.

해외를 방문한 대통령 등 정부 주요인사가 해외동포들과 갖는 간담회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그 효능은 참석자 인선과정, 간담회 진행과정에서 이미 저하된 경우가 있다. 해외파견 공무원이나 그들에게 협조하는 재외한인 단체 지도자들은 모든 일에 양심과 진실성으로 신뢰획득이 요구된다.

국가 지도자와의 간담회는 대화 주제와 참가자 인선과정에서 현장의 소리를 점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국가지도자와 국민(재외국민 포함)간에 갖는 간담회는 개혁의 대상 선정과 그 성과를 가늠하는 아주 좋은 기회이다. 담당자들은 실사구시의 태도로 참석자 인선과 진행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의와 지식의 힘의 사회기여는 금권만능 풍조를 누르고 보다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 효율성이 강조되는 행정을 낳는다. 그러나 그 지식의 힘 포용여하와 진실성은 각자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만은 형식과 요령주의가 행정에 작용해서는 안되고 실사구시적인 기술서비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현재 지식의 힘이 공직사회와 일반사회에서 존경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앞으로는 정의와 지식의 힘에 의한 희망의 사회가 전개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21세기 국가행정 최신 비전은 Software 사업 예산 비용 감리 평가 system 준비운영으로 구조조정 전략의 화신이 되어 사회가 감동을 받는 역할을 촉구한다.

姜 亨 鎭
(62년 文理大卒)
필라델피아지부
동창회 이사

송년 편집회의 겸 운영위원회

金회장 "앞으로 전개될 세계를 깊이 생각하자"

동아일보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12월 11일 한국언론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송년 편집회의 겸 동창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회장을 비롯해 林光洙수석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金鎭炫·金學俊부회장, 朴英俊감사, 李世震사무총장 등 동창회 임원과 동창회보 金哲洙·朴世熙·林炯斗·金鎭銅·南仲九·李炯均·金好俊·安炳璨·丘月煥·李慶衡·安國正·金鍾勳·金仁圭·徐玉植·朴時龍·朴聖姬논설위원, 모교 李基俊총장, 李鉉求부총장, 鄭正佶대학원장, 金基奭학생처장, 李秉基연구처장, 발전기금 郭守根상임이사, 대학신문 裵永洙주간, 姜承求홍보팀장 등이 참석했다.

金회장은 인사말에서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했듯이 우리 서울대인들은 조국 앞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 『지나온 1년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세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면서 한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20세기에서 21세기까지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아 왔다』며 『이런 기회에 以心傳心으로 공론을 모아서 21세기에 배턴을 넘겨 줄 훌륭한 동문, 멋있는 리더를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 李基俊총장은 『2010년까지 모교의 50여 개 전문분야 가운데 30개 분야 이상이 세계에서 최고가 되고, 우리만의 고유 업적을 창출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동문들은 물론 국민들이 서울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서울대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모교 鄭正佶대학원장의 취임 축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金회장이 鄭대학원장에게 24만 서울대인의 기대와 사랑이 담긴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다.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동창회보 발행인, 편집인, 주간, 논설위원 등 30명의 정성을 모아 「동창회보를 만드는 사람들」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 孫一根상임부회장이 동아일보 金學俊사장에게 전했다.

〈燮〉

미술작품 逸初 李澈周 作

「雄飛」, 한지에 수묵채색, 33×43cm, 2001.

◆ 작가 약력 ◆

- 67년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
- 75년 한국현대동양화대전
- 82~2001년 개인전 4회
- 86년 한국화 100년전,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
- 86~2001년 서울미술대전
- 90년 한국미술-오늘의 상황전
- 95년 한국현대회화 50년의 전개
- 98년 한국화 126인 부채그림전
- 99년 금호미술관 10주년 기념전
- 2000년 서울대 새천년전, 한중교수 교류전
- 2001년 21C 한국미술 그 희망의 메시지전
- 현재 중앙대 예대 한국화학과 교수

워싱턴DC지부 吳仁煥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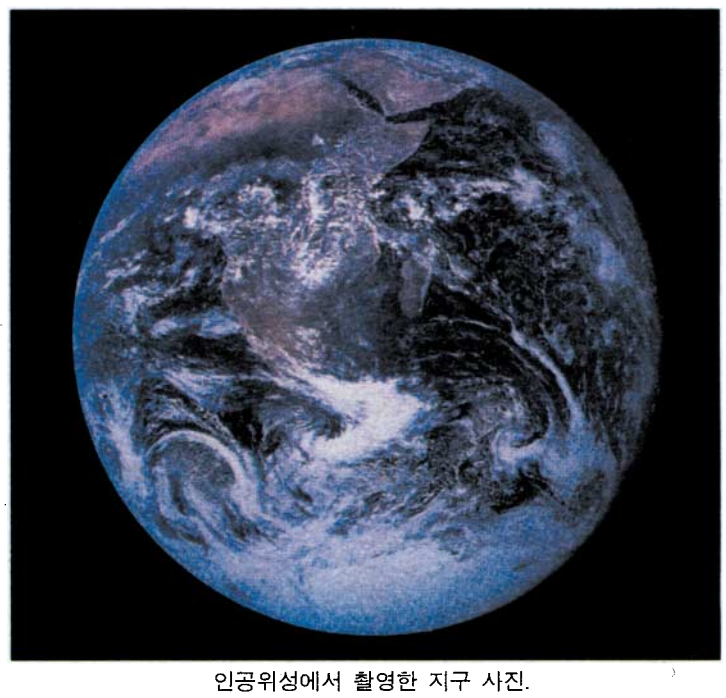
본회에 曺秀美 공연CD 전달

지난 12월 13일 워싱턴DC지부 吳仁煥(67년 文理大卒)동문(사진)이 본회를 방문, 李世震사무총장과 동창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재미 한인 우주과학기술자협회 회장, 한미장학재단 워싱턴지부 회장 등을 맡고 있는 吳동문은 지부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 9월 13일 제23대 회장에 陳今燮(63년 藥大卒)동문, 수석부회장에 李英默(63년 工大卒)동문이 선출됐다고 말했다.

또 특별기금관리위원회를 새로 조직하여 위원장에 方恩鎬(45년 京城藥專卒)동문, 위원에 鄭又淳(61년 師大卒)·陳今燮·李英默·吳仁煥·文成吉(70년 醫大卒)동문을 선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吳동문은 지난 8월 25일 George Mason University의 Center for the Arts Concert Hall에서 개최된 曺秀美(81년 音大入)동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5개와 동창회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뜻에서 인공위성 촬영 지구사진을 본회에 전달했다.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

건강을 지킵시다

뜨거운 정열이 만병통치

申昌植(76년 醫大卒)
아로마·벨 피부과 원장

최근 필자는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 집안에 어느 누구라도 건강을 잃게 되면 전 가족이 그 아픈 슬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뇌경색으로 뇌의 중요한 부분이 혈전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중풍이라고 하는 현상을 현대 의학으로는 혈전을 녹이는 헤파린 주사와 2차 세균 감염방지에 주력하며 치료를 하고 있지만 역시 난치임엔 틀림이 없다.

현대의학을 하면서도 생명의 막다른 골목에 서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싶은 생명의 애착을 느끼는 것이 자연인의 모습인지 모르겠다.

어머님의 중풍을 치료하기 위해 중풍을 많이 연구했다는 어느 한의사를 접하면서 건강하게 삶을 사는 인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씨조선 고종황제의 어의를 했던 박호풍 선생님의 마지막 수제자인 박형숙 선생님을 소개받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그동안 4만여 권의 한의학 서적을 수집했으며, 4천여 권의 책을 통달하면서 한의학의 깊고도 깊은 자연의 섭리를 연구하면서 어려운 난치병을 고치려는 모습에서 이것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삶이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아 갈 때 그 보람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40여 년을 수많은 한의서를 탐독하면서 고치기 힘든 난치병을 고치기 위해 1천5백여 종의 수많은 약초를 수집하며 노력하는 모습에서 고귀한 삶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Business-Mind」 자세로 돌진하고 있는데, 초연하게 환자를 고치는 것 이외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닌 치료본연의 자세에만 열중하고 과욕없이 열심히 살아온 모습에서 정말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물질만능의 시대로 흘러간다 해도, 우리시대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진리에 충실하고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꿋꿋한 의지로 살아가는 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 길이요, 그것이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키게 하는 힘이 되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의 물결을 만드는 근원이 될 것이다.

(연락처 : 546-4477)

추억의 窓

가정학도로서 문학소녀 꿈 못버려 작품 발표회서 자작시 낭송하기도

金順五(59년 師大卒)前경기여고 교장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다가 대학시절의 앨범이 눈에 띄었다. 낡은 사진들을 뒤적이는데 뜻밖에 사진 한 장이 나왔다. 누렇게 빛 바랜 이 사진이 지금까지 간직되어 있었다니 신기하기도 하고 반가웠다. 한참을 보다가 1950년대 학창시절로 되돌아갔다. 사범대학 문학회 제1회 작품발표회 참가 기념사진, 언젠가 작품발표회에 참가했던 기억은 나는데, 그것이 제1회였는지는 이 사진을 보고야 알았다.

그 때가 1957년 가을쯤으로 기억된다. 그 당시 동숭동에 있던 문리과대학 본관 대강당이었다. 그 때는 각 단과대학들이 모든 행사를 그 대강당에서 대부분 치르고 있었다. 당시 나는 가정교육과 3학년생이었다. 가정학을 전공하는 가정학도였지만 문학소녀의 꿈을 버리지 못한 채 문학서클 멤버였던 친구 H의 권유로 이 작품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을 것이다. 교지나 학교신문, 동인지 같은데 몇 편의 시를 발표해 봤을 뿐, 무대에 서서 시를 낭송해 보기는 그 때가 생전 처음이었다.

그 날은 시작 시간보다 몇 시간 전에 모여 순서대로 총연습을 했었다. 그 자리에 金南祚교수님이 오셔서 시 낭송하는 것을 보시고 지도해주셨던 기억이 난다. 金南祚교수님이 오시는 것을 몰랐던 나는 교수님 앞에서 원고를 들고 나의 자작시 「어느 노래」라는 시를 읽으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했던 기억이 새롭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어설픈 시를 들고 어떻게 감히 낭송을 하겠다고 그 문학회에 참가할 생각을 했는지 그 용기가 실로 놀라울 뿐이다. 아무튼 그 날 무사히 성대한(?) 작품발표회를 끝내고 기념촬영을 한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다. 이 행사가 사범대학 학생회 주최였는지 당시 학생회 부위원장이었던 같은 과 친구인 한양대 徐炳淑교수가 사진에 보인다. 앞줄 의자에 왼쪽에서 네 번째가 李宗秀사범대학장님이시고 바로 그 뒷사람 왼쪽에 필자가 보인다. 지금 같으면 뒤풀이 茶果會자리라도 마련했을 터인데 그런 기억은 없다.

문리과대학 그 대강당은 아직도 있는지, 지금쯤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고 그립다.

제1회 사범대학 문학회 작품발표회를 마치고.

謹賀新年

壬午年 새해에도 倍前의 聲援과 鞭撻을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고문	閔復基	상임부회장	孫一根
〃	金埈成	부회장	林光洙
〃	金道昶	〃	鄭晳圭
〃	朴浚圭	〃	李聖秀
〃	蔡汶植	〃	李達雨
〃	河永基	〃	李龍洛
〃	金相廈	〃	尹勤煥
〃	張禮準	〃	朴晟容
〃	白樂晥	〃	宋斗灝
〃	白文基	〃	韓斗鎭
〃	金鍾泌	〃	徐廷和
〃	李姬鎬	〃	李奭熙
〃	姜信浩	〃	李吉女
〃	具平會	〃	金貞植
〃	金泳三	〃	閔丙晙
명예회장	崔主鎬	〃	李龍兌
〃	李基俊	〃	趙南煜
회장	金在淳	〃	張翼龍
		〃	金鎭炫
		〃	金柱津
		〃	鄭宗澤

부회장	李金器	감사	朴英俊
〃	金讚淑	사무총장	李世震
〃	孫京植		
〃	尹世榮		
〃	李相禹		
〃	崔秉烈		
〃	吳仁錫		
〃	姜敏求		
〃	洪性大		
〃	孫吉丞	이사	李晟遠
〃	韓光玉	〃	朴明潤
〃	卞柱仙	〃	張世一
〃	金學俊	〃	李炯均
〃	朴容晟	〃	尹美子
〃	鄭大哲	〃	郭守根
〃	金基炳	〃	金一燮
〃	金基鏞	〃	李龍二
〃	玄在賢	〃	李鍾基
〃	洪錫炫	〃	鄭八道
〃	李珉和	〃	金秉順
감사	方孝宣	감사	朴柱鐸

재단법인 관악회

〈동창회 임원 겸임 동문은 중복을 피함〉

말띠 동문 10人의 新年 소망

壬午年, 새해를 맞이하여 각계 동문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말띠 동문 10명에게 2002년에 하고 싶은 일, 소망 등을 들어보았다.

말띠들 힘을 합쳐 복지사회 만들자

趙璣衡(30년생·53년 獸醫大卒)한풍제약 회장

말띠는 일반적으로 부지런하고 세심하고 빈틈을 찾아서 잘 보충해 준다. 무슨 일에 대처할 때에도 임기응변에 능하다.

반면에 신경이 날카롭고 항상 남보다 앞을 보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경향이 있다. 성격이 세심하기 때문에 큰일을 저지르지 못한다. 일에 대처할 때에는 그 일이 해결되기 전에는 잠도 깊이 자지 못한다. 이런 성격이니 큰돈도 못 벌고 지휘자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필자의 동갑내기들을 둘러보면 그런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일생을 바쳐서 힘껏 일하고 기업이나 윗사람을 성공 또는 출세시켜놓고 토사구팽 당하는 꼴이 된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집합체이니 만큼 그 누가 잘났고 못났고 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 나름대로의 성격과 능력에 따라 일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단지 중요한 것은 어느 누가 여러 사람에게 존경받고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이고 70~80이 넘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황금만능주의에 휩쓸려서 세상이 다 알만한 지위에 오른 사람이 돈 몇 푼에 인생을 망치는 꼴을 보면 마음이 아픔을 넘어서 구역질이 난다. 부와 명예를 전부 다 갖추려고 하는 욕심 때문일 것이다.

우리 新사회는 건국한지 반세기가 흘렀다. 이제 뼈대는 거의 완성된 것 같으나 아직도 엉성하고 메워지지 못한 빈틈이 많이 보인다. 우리 말띠들이 나서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온 나라의 말띠들이여, 분발하여 우리가 할 일을 하자. 꾸준히 욕심 없는 말처럼 달려보자. 그래서 빈틈없고 꽉 짜여진 복지사회를 건설하자.

정력 넘치는 영원한 20대를 꿈꾸며

孫文子(42년생·66년 美大卒)서양화가

말띠의 해를 다시 맞이하니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기까지 합니다. 나이 60이 되고 보니 지난해 금강산에 올라갔던 일이 생각납니다. 열심히 만물상을 오르다가 힘이 들어 잠시 쉬며 아래를 내려다보았던 기분입니다. 좋은 경치는 보지 못하고 열심히 올라왔으니까요. 숨을 몰아쉬며 올라온 길을 돌아보니 머리 위로는 드높은 하늘과 발 아래는 기암절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참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괴로운 일들이나 즐거운 일들이나 모두 내게 유익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화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창조적 상상과 미의 세계를 화폭에 남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나의 성취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50을 넘기면서 파리에 유학도 갔었습니다. 그 당시 나의 모든 정력을 쏟아 새 장르도 개척했습니다. 루부르 박물관은 물론이요 내가 몰랐던 여러 미술관들을 비롯해 몽마르뜨 언덕에서 새로운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마띠스를 무척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파리에서 많은 다른 화가들의 진품들을 보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때 나를 가까이서 본 사람들로부터 『당신이 지금 20대인 줄 아느냐』고 핀잔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여전히 20대입니다. 또 말띠는 지금의 21세기에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말은 영리하기도 하려니와 빨리 달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식사회와 속도사회의 욕구를 다 충족하니까요.

평화가 지배하는 한해가 되기를…

李傑三(42년생·66년 文理大卒)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사실 지난해처럼 다난했던 해가 또 있었을까. 수백 명을 태운 멀쩡한 여객기가 1백층 건물을 들이받아 그 큰 건물이 화염 속에 그대로 주저앉는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끔찍한 장면들이 우리의 눈과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한 그것을 응징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창고에 쌓아놓았던 엄청난 양의 폭탄들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쏟아 붙는 장면들도 우리는 보았다.

나라안에서도 무슨 무슨 게이트다 하는 시끌벅적한 뉴스가 주기적으로 등장해 일년 내내 우리의 귀를 마비시켜버렸다. 작년에 나에게 일어났던 즐거운 추억이라고 한다면 40년 전 동숭동 마로니에 광장에서 4·19를 겪었던 문리대 입학동기들이 전공을 초월하는 새로운 동창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던 것이 유일한 것 같다.

금년에도 전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 축구는 물론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어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것 같다. 축제로 시끄러운 것이야 탓할 것이 없지만 제발, 금년에는 전세계가 작년과 같은 인류의 재앙이 없는 평화가 지배하는 한해가 되어주십사 하는 소박한 소망을 간절히 빌어 본다.

역마살이 끼었다는 말띠답게 나는 그 동안 많이도 뛰어다녔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은 물론 태국, 이집트와 같은 후발국에서도 2년 이상씩을 살아보았고, 가방을 들고 땅을 밟아본 나라는 오대양 육대주에 이르러 그야말로 말띠의 의무(?)를 다한 셈이다.

그러나 이제 차분히 지난 세월을 한번쯤 뒤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길을 설계하여 볼 때가 된 것 같다. 이제까지는 남의 일로만 보아오고 마음속으로만 부러워하던 이웃사랑, 사회봉사라는 것도 실천해 보고 싶고 새롭게 전개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충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인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일찍이 인생은 60부터라고 선현들께서 갈파하지 아니했던가.

대학을 졸업하고 25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문득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자원은 무엇인가? 자문해 본다. 그것은 아마 서울대 동문이라는 것일 게다. 이보다 더 나를 자랑스럽게 보증해 주는 것은 없을 것 같다. 서울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은연중 취직도 잘 되고 낯선 사람까지도 신뢰해 주고 존중해 주니, 이보다 더 좋은 무형의 재산이 어디에 있겠는가. 동문들은 그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서울대 출신들 덕택에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다는 평판을 들을 수 있도록 성실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을 등산대회 다섯번은 더 가고파

尹敬順(30년생·53년 藥大卒)조훈당제약국 약사

2002년 壬午年을 맞이하는 문턱에서 조용히 지난해를 돌아보니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나 아쉬움은 여전하다.

지난 2000년 8월에 LA에 계시는 형님 댁을 방문학 적이 있었다. 형님은 그 당시 76세라는 노구를 이끌면서 유학생 7명의 하숙생활을 책임지시고 계셨다. 그 중 2명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 차 와있던 중이었다.

형님 말씀이 확실히 서울대생은 자기 관리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이 든든하다며 우리 서울대생의 칭찬을 하셨다. 나는 내심 많이 기뻤다.

이후 그곳에서 록키산맥 관광을 떠났다. 가는 도중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있어서 일행은 그 집에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들렀다. 보기에도 주인은 좀 식견이 있어 보였다. 물어보니 남편은 서울공대 출신이며, 자기는 이화여대 중퇴자라고 말했다. 그래서 유심히 그 남자주인을 보니 작은 체구에 매우 부지런히 움직이며 굉장히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다른 식당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음식을 푸짐하게 주며 특히 그 음식점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방명록에 서명을 하고 간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 방명록에는 역대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및 유명인사 대부분의 서명이 기록되어 있었다. 주인은 이것을 보며 고국을 그리면서 산다고 말했다.

지난번 가을, 서울대총동창회 관악산 등반대회에 참가한 일이 있었다. 사위와 딸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조금 힘이 들었지만 목적지에 도착해 여러 동문들의 재미있는 장기를 보니 그 재미는 더욱 나를 젊음으로 돌아가게 하기에 충분했다. 앞으로 다섯 번 정도 더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보다 많은 관심과 우정이 필요하다

金忠環(54년생·77년 社會大卒)
서울시 강동구청장

삶을 살아야겠다. 모교가 나의 삶에 중요한 의미이듯이 나도 모교에 의미 있는 동문이 되도록 모교의 명예를 높이고 동문회의 발전에 정성을 다해야겠다.

최근 서울대가 미국의 중류 대학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국립대학이다 보니 학교의 발전이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되게 되어 있다. 학교를 어떻게 그렇게 방치하였나 걱정스런 마음이 든다. 정부에서 일하는 동문들은 모교가 민족의 대학으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동안 훌륭한 선배들이 동창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들이 그 역할을 계승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보다 많은 관심과 우정을 나누는 좋은 서울대인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인재 양성에 더욱 정성 쏟아주세요

朴慶姬(54년생·77년 家政大卒)KBS아나운서실 부주간

1973년 가정대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할 당시만 해도 가정대학이 사범대에서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정대학관이 용두동 사범대 한쪽에 있을 때였다. 2학년까지 용두동 시절을 보내고 3학년부터 관악산 캠퍼스 시절이 열렸다. 말하자면 우리는 관악 캠퍼스 1기인 셈이다.

사상 최악의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난이라는 요즘에 비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졸업할 무렵에는 경제가 한창 호황이고 종합무역상사가 최고의 직장으로 인식되던 때여서 서울대 남학생이면 한 사람 앞에 몇 개의 기업체들이 줄을 설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여학생은 예외였다. 오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아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그 시절의 절박함이 지금도 시리게 느껴지면서 요즘 여자 후배들은 얼마나 마음 고생을 할까 미뤄 짐작된다.

1977년 KBS 공사 4기 아나운서로 입사한 지 벌써 올해로 25년째, 여자 아나운서는 단지 꽃으로만 인식되던 시절을 건너 여성에 대한 조직 내의 편견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직도 녹록치 않은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때때로 과연 내가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을 나왔어도 지금의 내가 가능했겠는가 하고 반문해 본다.

한가지 모교에 바람이 있다면 인재를 길러 내는 일에 보다 정성을 기울여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돌아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싶게 요즘 서울대에 입학하려면 슈퍼맨이 되어야 함을 딸아이의 입시를 치르면서 몸으로 체험했다. 사회는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분야는 좀 더 세분화되는 추세인데 오히려 대학은 역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회 일각에서 들리는 돈 많은 부모 만나지 못하면 서울대를 가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은 불식시켜야한다는 얘기이다.

마지막으로 KBS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부에서 펼치고 있는 방송언어에 있어 바르고 고운 우리말이 정착되고 활성화돼서 은어와 비속어 등으로 날로 오염돼 가는 우리말의 정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며 바른말의 첨병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한다.

매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자

李憲壽(66년생·93년 工大卒)특허법인 LMK 변리사

새해는 여러 가지로 많은 기대가 담기는 해이다. 월드컵이 있고, 여러 차례의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대운이 열린다는 해이기도 하고 새로 시작한 일이 성숙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말띠는 12지간 중 양기 중의 양기이며, 오행(五行) 중 강한 화성(火星)의 기운이다. 그래서 그런지 말띠들이 정열적이고 적극적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나 보다. 아직 한창의 나이지만 지난날을 돌아보면 참 말띠답게 어찌 보면 천방지축의 삶을 살아온 것 같다.

군 제대 후 일찍 결혼해서 대학원을 다니다 우연히 도전한 기술고시에 쉽게 합격하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게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허청에서 7년 가량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심사 부서, 심판부, 송무팀을 거치면서 좋은 실무 경험을 쌓게 되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자만심에서 많은 실수를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좋은 분들이 많아 잘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이다.

특허청을 그만 두고 변리사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참 바빠졌고 많은 것을 느꼈다. 변리사라는 직업은 고객의 연구개발 성과를 권리화한다는 측면에서 고객과 지속적인 신뢰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연구개발 책임자들을 만나다 보면 좋은 분들을 알게되는 즐거움이 있기도 하지만 시간을 다투는 특허의 성격상 늘 꽉 짜인 일정에 쫓겨다닌다. 다른 한편으로 업무 성격상 직원 수가 많기 때문에 조직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처음 1년 동안은 정신 없이 일만 했다. 그러다 보니 건강도 해치고 나 자신으로부터의 반발이 거셌다.

2002년에는 좀 더 차분하게 자기관리에 힘써야겠다. 무리한 욕심보다 원칙을 고수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새롭게 해야겠다.

둘째로,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바라보자. 만남과 일 속에서 인생을 엮어나가는 느낌을 항상 잊지 말자.

셋째로, 신뢰의 테크닉을 익히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익히자. 내 또래의 친구들이 흔히 느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좋은 아내·좋은 엄마·좋은 검사될 터

黃銀永(66년생·91년 法大卒)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내가 세상에 태어난 해는 1966년 말띠 해였다. 흔히들 말띠 여자는 좋지 않다는 말들을 하는데,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릴 때는 조금 화가 났고 어른이 된 지금은 슬며시 웃는다. 어릴 때는 검사라는 직업이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 사실 법대에 입학한 1학년 때만 해도 정확히 검사의 직분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다. 1학년이 지나고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서 검사에게 이러이러한 직무가 부여되어 있구나하고 알았으니까. 그런 내가 검사로서 임관 받아 일한 지가 어느덧 5년이 다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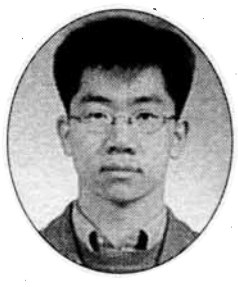
왜 검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돌이키면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운명처럼」 검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매번 말띠 여자는 드세다, 고집이 세다하는 말들을 들을 때면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웃음이 나고 그 말이 그렇게 싫지가 않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면, 태어난 해를 뺀다고 하더라도 벌써 세 번째 말띠 해를 맞이한다. 새해에는 가정에 좀 더 충실하여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검사로서 더 열심히, 성실히 근무하고 싶다. 언제나 부족함에도 항상 격려하고 아껴주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새해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생활할 것이다. 제주에 근무하면서 언젠가 말을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말등에 앉아 한라산을 바라보았을 때의 생동감 있는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그 느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그 감동으로 일년을 채우고 싶다.

개발중인 제품 세계 최고 되었으면

權俊亨(78년생·2000년 自然大卒)
PSIA(주) 연구개발부 연구원



「나노 과학의 선두주자」. 부푼 꿈을 안고 PSIA(주)의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지도 만 2년, 말띠해인 2002년에는 벌써 입사 3년 차가 됩니다.

항상 새해가 오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현재 개발중인 우리 회사의 원자현미경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제품으로 완성하는 것을 첫째가는 소망으로 꼽겠습니다. 원자현미경은 기존에 있었던 현미경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현미경으로서,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과는 달리 Micro-Machining의 방법으로 제작된 매우 작은 탐침을 센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1미터의 10억분의 1에 해당하는 원자 한 개까지도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의 구현을 위해서는 탐침 외에도 레이저와 광학 기구, 압전소자 등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90년대 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朴尙一(81년 自然大卒)사장 외에 우리 연구원들은 이미 다년간의 연구로 원자현미경 중에서도 가장 앞선 제품의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의 유망 기술을 연구한다는 점 외에 제게 흥미로운 것은 모교에서 그저 이론에 그치기 쉬운 연구를 실제 상용화된 제품으로 개발한다는 일 자체가 가지는 흥미로움입니다. 실험실에서 고도의 지식을 갖춘 과학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기기를 평범한 사람들 누구에게나 사용하기 쉽고 안정적으로 제품화한다는 것은 연구실의 고난도 실험 이상의 높은 수준의 기술과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특히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의 경계가 사라져가고, 최첨단의 기술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요즘, 보다 실질적인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것이 제게는 말할 수 없이 큰 보람입니다.

더욱 감동적인 선율 들려주고 싶어요

韓惠媛(78년생·2001년 音大卒)
KBS 교향악단 단원·바이올리니스트

KBS 교향악단에 신입단원으로 들어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200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빴던 한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 그 속에서 지켜야 하는 여러 가지 규칙과 행동들을 거치며 저도 어느새 직장인이라는 어색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명함을 달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KBS 교향악단은 1956년에 창단된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입니다. 매월 2회의 정기연주회를 가지며, 많은 지방연주회와 특별 연주회를 갖고 있습니다. 2001년만 하더라도 총 83회의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협연자들도 있었고,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실력을 가진 협연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Cross-Over 연주를 가지면서 새로운 감흥도 받았습니다.

학부시절에도 많은 연주회를 가졌지만, 학생 신분일 때의 연주회와 단원 신분일 때의 연주회는 사뭇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차츰 마음이 안정되고,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연주자와는 달리 교향악단 단원이라는 직업은 저에게 여러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악기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연주될 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선율을 이루고, 그럴 때 관객들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은 제가 2001년 한해동안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2002년 새해에 제가 바라는 바는 더욱 열심히 연주하고 노력해 더 아름다운 연주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관객들에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선율을 들려줄 수 있는 희망의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부순례

미국 조지아 지부

「북한아동 돕기 음악회」 등 교민활동 지원도 적극

글 : 金在喆(69년 工大卒)회장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로 소개 됐었고, 1996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조지아의 아틀란타.

이 지역에 등록된 서울대 동문은 현재 96명이다. 서부나 동북부 지역에 비하면 이곳 남부에 한국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서울대총동창회가 아틀란타 지역에 지부를 세운 것도 1989년 6월 17일, 불과 12년 남짓 된 일이다. 金容鍵(52년 文理大卒) 동문이 초대 및 2대 회장을 맡은 뒤로 3대 方昌模(54년 文理大卒)동문, 4대 金秀一(65년 醫大卒)동문, 5대 金敏夫(62년 師大卒)동문, 6대 金禮舜(72년 文理大卒)동문, 7대 魚瀅善(55년 獸醫大卒)동문, 8대 林漢膺(64년 工大卒)동문, 9대 盧幸子(67년 文理大卒)동문, 10대 林壽岩(67년 工大卒)동문, 11대 朴喜昌(60년 文理大卒)동문 등 10명의 동창회장을 거치면서 조지아 지부는 많은 발전을 이루며 성장해왔다. 현재 필자와 趙德盛(78년 工大卒)부회장, 金在護(84년 工大卒)재무이사, 文鍾賢(88년 社會大卒)총무이사, 회보 편집에 尹敏子(69년 音大卒)·金廷姬(76년 看護大卒)동문 등이 12대 회장단을 이끌며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2001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

조지아 지부는 2001년부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더욱 활성화하며 소식도 함께 나누기 위한 방편으로 3개월 간격으로 동창회보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회보의 명칭은 조지아텍大 경제학과 석좌교수인 殷哲洙(68년 商大卒)동문이 제안한 「조지아 관악회보」로 결정했다.

정기모임으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의 야유회를 통해 동창회의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간에 정을 나누고 있으며, 특히 연말에는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 만찬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여흥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 간에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16명의 골프 동호인들이 두 달에 한번씩 모여 남부의 따뜻한 날씨를 즐기며 늘어난 기량을 겨루며 화목한 시간을 갖고 있다. 작년에는 특히 金秀一동문 부부가 같은 날에 나란히 홀인원을 기록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 동문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배타적인 성격과는 달리 조지아 지부는 교민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명분이 뚜렷하거나 서울대 동문이 직접 관련된 교민활동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金容鍵동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미장학재단을 후원하고 있으며, 작년 11월에는 「북한아동 신발 보내기 음악회」에 李泰煥(90년 音大卒)동문이 참가, 조지아 지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후원에 참여했다. 작년 9월 뉴욕지역의 테러참사의 희생자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에도 이곳 동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당액의 기금을 모아 미국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金 在 喆 회장

앞으로 조지아 지부는 재정적인 자립을 목표로 작년부터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하기로 결정해 지속적인 모금을 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동창회는 회비 수입에서 1천 달러를 갹출하고 기타 모금활동을 통해 목표액을 달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동문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기대해본다.

기과순례

응용화학부 동창회

인터넷 통해 소모임 유도…모교에 3천만원 출연

글 : 李本守(68년 工大卒)회장

李 本 守 회장

응용화학부 동창회는 모든 동문들이 나이와 졸업기수를 초월해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만나 교류하며, 정보도 나누고 격려해 주며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모임이 되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엘리트 의식과 지적 자만심을 뛰어넘어 동문 서로간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편하게 즐기며 친근감이 느껴지는 모임의 동창회, 사무적인 조직체계가 아닌 타인에게 봉사하며 인간의 정이 느껴지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응용화학부 동창회는 동문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총회를 1년에 두 번, 춘계총회와 추계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는 동문들의 협력과 단결 강화를 위한 회장단 및 간사진 정례모임을 매달 가지고 있다.

지난해 5월에 열린 춘계 정기총회에서 林武炫(65년 工大卒·대주정밀화학 대표)회장의 후임으로 필자(李本守 : 68년 工大卒·인하대 교수)가 신임 회장에, 余琮琪(70년 工大卒·LG화학 기술연구원장)동문이 수석부회장에 선출돼 동창회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1년에 두 번 회장단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매월 3째 주 일요일에는 건강도모와 친목을 위한 등반대회(산우회)를 빠짐없이 개최, 대단한 열기 속에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문들의 기량을 마음껏 관람할 수 있는 골프대회를 열고 있으며, 동창회 소식지도 빠짐없이 발행하고 있다.

한편 동창회의 자랑거리이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응용화학부 동창회 홈페이지 작업과 4백여 명의 대가족이 매번 참석하는 홈커밍데이 행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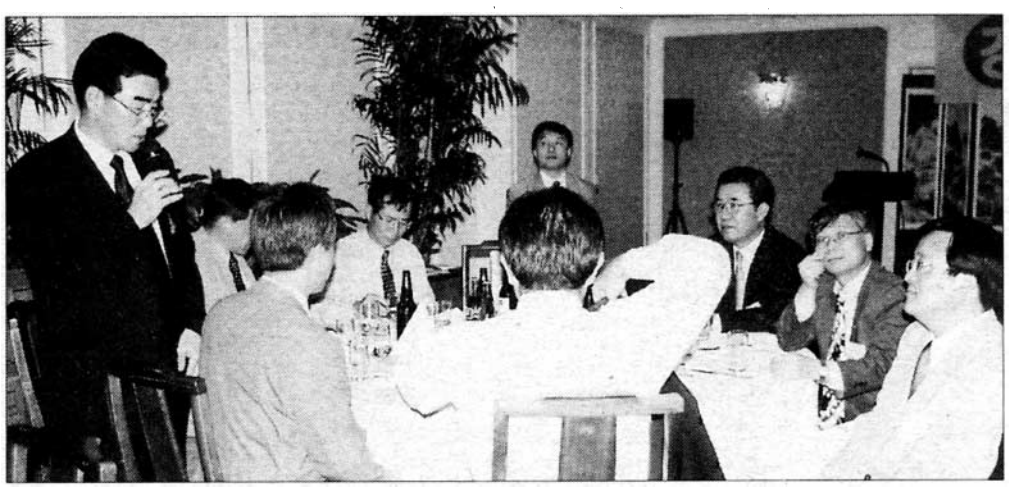
작년 8월 응용화학부 동창회 홈페이지(www.chemeng.or.kr)를 개설, 「동창회 활동」「동창회 모임」「기별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동문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동창회 소모임을 쉽게 만들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매년 4백여 명의 동문이 참여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더욱 알찬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만큼은 동문과 가족이 모두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다. 특히 2001년 홈커밍데이 행사에서 동문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으로 모교에 기술잡지 보조금과 세미나 기금으로 3천만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들을 소개하자면 2001년 새로 입회한 박은용(01년 工大卒)동문이 모교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해 총장상을 받았으며, 모교 劉永濟(74년 工大卒)교수가 입학처장에, 李弘熙(66년 工大卒)교수가 공대 초미세소자기술연구소장에, 尹寅燮(71년 工大卒)교수가 공대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장에 각각 임명됐다.

그밖에 서울대동창회 제2회 관악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鄭哲圭(52년 工大卒·신양문화재단 이사장)동문에게 동창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전임 沈利澤(63년 工大卒·대한항공 사장)회장이 심포지엄을 개최해 많은 동문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앞으로 응용화학부 동창회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등 친근감과 따뜻한 정이 오고가는 동창회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1년 춘계 정기총회.

동문을 찾아서

한국국제교류재단 李仁浩이사장

"받은 혜택보다 더 큰 이익 환원해야"

지난 12월 14일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李仁浩(55년 文理大入)이사장을 만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지난 1년 동안은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정신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 동안 국회에서 우리 재단의 재원이 되는 국제교류 기여금 폐지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2년 유예결정을 얻어내긴 했지만 걱정입니다』

-국제교류재단의 주요 목적사업은.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지원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에는 우리 재단의 사업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Korea Foundation」이라고 하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여론 지도층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고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어요.

우리 재단은 국가가 직접 할 수 없고, 민간이 주도하기에는 조금 벅찬 문화교류 사업을 펼치는 한편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 우호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단이 이룬 성과는.

『미국 하버드대, 컬럼비아대, 예일대, 영국 옥스퍼드대, 호주 시드니대, 인도 네루대 등 40여 개의 세계 유수 대학에 한국학 교수직을 설치했으며, 영국박물관, LA카운티박물관, 기메박물관, 멕시코 문화박물관,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에 한국문화를 선보이는 한국실을 개설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동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14개 국가에서 30여 명의 외국학자들이 참관을 했는데, 80% 이상이 우리나라 말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국학을 전공한 교수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의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재단의 재정 상태는.

『연간 2백억원의 재단 예산은 여권수수료 1만5천원으로 조성되는 국제교류기여금과 그동안 적립한 1천8백억원의 국제교류기금 이자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가 준조세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국제교류 기여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재단 입장에서는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여유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국제교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면에서 국제교류 기여금이 가장 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기여금을 따로 걷지 않고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겠지요.

어느 나라든 우리와 비슷한 기관이 있는데 영국 브리티시 카운실의 예산이 우리보다 40배가 넘고, 우리의 직접 모델이 되었던 일본 국제교류재단(Japan Foundation)의 예산이 우리의 13배쯤 됩니다』

-향후 사업계획은.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대학에 한국학 전공 교수직은 제법 설치되었으니까 이제 개발도상국 쪽으로 눈을 돌려 사업을 확산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지 못했지만 여유가 생기면 한국어 보급사업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교류 자원봉사자망 구축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능력과 용의에 맞게끔 체계를 정비할 생각입니다』

-러시아 역사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

『미국 유학 시절, 소련이 인류 최초의 우주선인 Sputnik을 쏘아 올리니까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서 소련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때 우리 나라는 반공 분위기가 심각해서 소련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였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나라를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러시아 문학작품을 읽은 기억이 나고 호기심도 생겨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Career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도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변해서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었어요』

-모교 후배들에게 한 말씀.

『최근 출장 중에 하버드대 Robert Coles교수가 쓴 「Lives of Moral Leadership」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Robert Kennedy 같은 저명한 정치인부터 이름 없는 중학교 교사, 버스기사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적으로 충실히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들을 사례로 들어 도덕적 지도력이란 무엇인가를 조명한 책이죠.

저는 서울대에 입학한 사람들은 자기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자질이 남보다 우월하기에 그만큼 책임감이 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입은 혜택보다 더 큰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附和雷同하지 않고 소신 있게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런 자세를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李동문은 55년 문리대 사학과에 입학해 2학년 재학 중에 도미, 미국 웨슬리대학에서 학사학위, 래드클리프대학에서 소련지역연구 석사학위, 하버드대학에서 서양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버나드대, 컬럼비아대, 고려대 교수 등을 거쳐 79년부터 96년까지 모교 인문대학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한국슬라브학회장, KBS 이사, 한국서양사학회장, 국사편찬위원, 교육개혁위원, 총리실 여성정책심의위원, 핀란드 대사겸 에스토니아공화국 대사, 러시아 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2월 유네스코 서울협회로부터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李동문의 가족 가운데 조부 義山 李明世(18년 京城專修學校卒·前성균관장 및 성균관대 부이사장)동문, 부친 李鍾憙(37년 京城高商卒·前조흥은행 상무)동문, 남동생 李善浩(64년 商大卒·前한국수출입은행 전무)동문, 李文浩(64년 法大卒·LG인화원 원장)동문, 李成浩(72년 醫大卒·LA 산부인과 의사)동문 등이 모교 출신이다. 〈燮〉

화제의 동문 Talk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魯仁煥동문

98년부터 예술의 전당 자원봉사

"북한인권 위한 NGO에서 활동하고파"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며, 재계인사도, 연예인도 아닐지 모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빛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번 호에는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주고 있는 자원봉사자 魯仁煥(58년 商大卒)동문을 소개한다.

1997년 봉제수출사업을 하던 그가 IMF를 겪으면서 어려움에 빠져 좌절의 쓴잔을 마시게 됐을 때, 1998년 2월 예술의 전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렸다. 현재 사회복지재단인 「양천사회복지회」에서 이사를 맡아 정신장애자, 지체장애자, 중복장애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불어넣고 있으며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에서 국제조직위원장으로 탈북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런 공로로 2000년 6월 서울시로부터 「자랑스런 시민상」(시민화합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무역회사 재직시절, 음악을 좋아한 그는 해외출장중 자주 카네기홀, 링컨센터 등 각종 공연장을 찾았는데, 그 때마다 그곳에서 자원 봉사하는 노부부들을 보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다.

그는 또한 미국 사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을 접하면서 가진 자가 없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자원봉사라는 것과 이로 인해 빈부 차에 의한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우리 나라에서도 빈부 차에 의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자원봉사라고 생각한 그는 「예술의 전당」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가 하는 일은 외국인 안내, 질서유지와 청결 등이다. 공연 도중 음료수, 카메라, 휴대전화 등의 이용을 통제하며, 관람객들이 모자를 쓰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게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魯동문에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중 하나는 20대 한 젊은이가 운동모자를 쓰고 관람할 때였다. 이를 정중하게 주의를 주고 돌아온 그는 다시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젊은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다시 주의를 주려하자 젊은이는 욕을 하며 대들고 가버린 것이다. 그 후 「예술의 전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그 젊은이의 항의문이 실려 그는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와는 반대로 초등학생들이 관람 왔을 때 한 어린 학생이 모자를 벗으라는 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고 있자 하는 수 없이 포기하고 자리에 돌아왔는데, 주의를 줬던 그 학생이 나중에 용서를 구한 일도 있었다.

「예술의 전당」 안내를 하는 작은 일도 그의 보람이지만 또 한가지 큰 사명을 가지고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있다. 1948년 중학교 3학년 때, 북한에서 단신으로 3·8선을 넘어온 그에게 북녘 땅은 끊임없는 그리움과 애정의 대상이 되어왔고 어떻게든 북한 주민들을 돕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는 이런 소망을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에서 자원봉사 하는 것으로 이루고 있다.

수많은 북한 주민이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고 있으며, 이를 막으려는 북한 당국에 의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의 말살과 살육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 1999년 2월 12일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에도 북한을 탈출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 1999년 3월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가 창설됐다. 이 단체는 2001년 3월, 천만명 서명을 달성했고 유엔에 제출하여 1차 목적인 유엔청원을 이루면서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로 개칭됐다.

현재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는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 기타 지역으로 탈북한 주민들에게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탈북주민들은 단순히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경한다는 중국의 주장과는 달리 정치적 배경에 의한 굶주림으로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이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그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탈북난민보호 운동본부」의 주목적이며, 魯동문은 이런 운동을 국제적으로 조직화·공론화 하는 일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북한 인권을 위한 NGO인 「North Korea Humanrights Committee」가 조직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과 예술의 전당에서 자신을 내보내지 않는 이상 자원봉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현재 그의 계획이다.

魯동문은 『우리 나라 안에서의 인권문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에서 인권이 말살되는 것을 왜 대학생들이 문제 제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젊은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매스컴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명예스럽게 표현하고 젊은 후배들은 남을 위한 사회봉사를 작은 것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亨〉

서울大 人名錄(假題) 및 CD-ROM TITLE 발간을 시작합니다

서울대인의 인명록 제작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내던 선·후배, 동기간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서울대인의 정체성을 묶어 어려운 시기에 서로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실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대 인명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대조류에 맞춰 회원명부와 더불어 각계의 『직업 · 직장별 명부』와
『CD-ROM TITLE』을 함께 구성하여 명실상부한 『서울대 인명록』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 발행일 : 2002년 6월경 ■ 자료마감 : 2002년 3월 30일
■ 내 용 : 회원명부, 직업 · 직장별 명부, CD-ROM TITLE ■ 구입가격 : 100,000원
■ 회원인적사항 통보 및 문의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5 TEL:02)704-8301(直) FAX:02)704-8564 E-mail:snua2002@korea.com

동문기업 탐방

㊻ (주)코아텍

세계 최고 꿈꾸는 전자통신 부품업체

「압전세라믹 레조네이터」로 1백억 매출 이뤄

무더운 어느 여름 날, 한 가정주부의 하루 일과를 상상해 보자. 우선 시원한 실내를 위해 22℃로 에어컨을 맞춰놓는다. 남편과 아이들이 각자 직장과 학교를 간 후, 다소 썰렁해진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리모콘으로 오디오를 켠 채 간단하게 집안청소를 한다. 이어 휴식 시간을 틈타 소파에 앉아 역시 리모콘으로 TV를 작동시키고 아침 드라마 한편을 시청한다. 따르릉… 전화벨이 울리고 고교 동창으로부터 점심식사 초대를 받는다. 이를 수락한 후, 재빨리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로 인터넷을 클릭한다. 약속이 있는 관계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늘 저녁 식사와 아이들 도시락에 필요한 반찬을 주문할 계획이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고 온라인 결제를 마친 후 외출 준비를 하고, 집안을 나서기 전 혹시 집을 비운 사이 걸려올 전화에 대비해 어제 밤 충전시켜 놓은 휴대폰을 백 속에 넣은 뒤 가벼운 마음으로 친구 집으로 향한다.

현대인들이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법한 일과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TV, 오디오, 전화기, 휴대폰, 컴퓨터 등의 통신 기기 및 전자제품 없이는 더 이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전자제품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핵심 부품 중 하나가 바로 – 심장에서 온 몸으로 피를 돌게 하는 원동력과 같은 – 압전세라믹 레조네이터(Resonator)이다. 일본이 석권하다시피 하는 레조네이터 시장에 국내 벤처기업이 혜성처럼 등장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전자통신부품회사 (주)코아텍(사장 梁成錫·90년 工大卒)이 그 주인공이다.

설립되기 10년 전부터 압전세라믹 레조네이터만을 연구·개발, 삼성·LG와 같은 국내 유수의 기업도 해내지 못한 압전세라믹 부품의 국산화를 실현시킨 코아텍(www.core-tech.co.kr)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부품의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는 세라믹 조성기술과 설비기술, 부품설계 기술에서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었으며, 무엇보다 양산기술(장비 및 공정라인 자동화)을 구축해 저비용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梁 成 錫 사장

90년대 말까지도 국내는 부품·소재 산업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독자적인 분말합성, 가공·전극형성 기술과 자동화 조립기술, 코팅 및 검사기술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은 전무했다. 이로 인해 2천억원에 달하는 레조네이터 국내시장 전체를 일본업체들에게 내줘야했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외국기술을 그대로 들여와 가격 경쟁력에서도 열세를 면치 못했다. 그러나 코아텍은 전자통신부품 관련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핵심 기술진과 제품의 우수성 및 기술지원˙서비스 등으로, 세라믹 전자부품에 50여 년을 투자한 일본 무라타社와 비교해 품질 및 성능면에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품질과 40%나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 국내 레조네이터 시장의 가능성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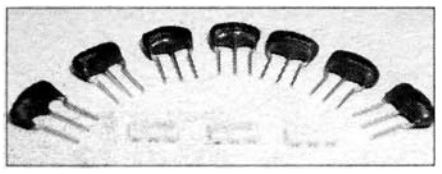
국내 3대 가전社인 삼성, 대우, LG로부터 강도와 내충격성, 온도계수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코아텍은 현재 3~27MHz 압전세라믹 레조네이터를 월 1천만 개 이상 생산하며, 1백억대 이상의 매출신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주요 기업에까지 그 우수성이 알려져 1조5천억원에 달하는 세계시장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梁사장은 특유의 창조력과 사업가 정신으로 압전세라믹 응용개발 제품인 초음파미용기(Renew-cell Facial Vitalizer)를 작년 9월 개발, 12월부터 생산·판매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일반 기능성화장품이나 팩을 사용해도 개선하기 힘든 여드름, 기미, 주근깨, 잔주름 등을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주는 제품으로, 출시 전부터 관련업계의 큰 이목을 끌었다. 기존의 업체들이 각종 부품들을 단순 조립하는 것과는 달리 수년간 축적된 핵심 부품인 압전세라믹에 대한 know-how가 고스란히 적용됐기 때문에 여성관련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장·미용 분야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으며, 철저한 고객중심 서비스를 바탕으로 레조네이터 사업 못지 않은 성장세를 이룰 전망이다.

한편 코아텍은 이러한 원천기술뿐만 아니라 경영에서도 최고를 지향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과 그 영역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해 꾸준한 내부기술의 혁신을 꾀하며, 제품을 제공받는 고객뿐만 아니라 1백여 명에 달하는 사내 직원들, 더 나아가 국가 및 전세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기본이념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사업가 정신이 살아 숨쉬는 강하고 독특한 조직문화를 만들며, 실시간 변화하는 21세기 미래정보통신사회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梁사장은 『앞으로 압전세라믹 레조네이터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 매출의 20% 이상을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향후 출시될 IMT-2000 통신부품용 유전체 필터와 광통신용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및 초음파 미용기처럼 압전세라믹을 활용한 소비재도 계속 연구 개발해 코아텍을 「세계 최고의 부품기술을 보유한 초일류 종합 전자통신부품회사」로 등극시킬 예정』이라는 당찬 계획을 밝혔다.

〈表〉


압전세라믹 레조네이터.

대전에 위치한 본사 전경.

◆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 2002년 인명록에 기록될 본인 및 주위에 알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연락처를 아래양식에 의거하여 정확히 기재하셔서 우편, 팩스 또는 E-mail 등으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과정을 이수하신 동문께서는 각각의 학과명과 입학·졸업년도를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명록의 구입을 희망하실 경우 , 신청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성명		한자성명		영문성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단과대학		학 과	
직 장 명			부 서			직 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직업 및 업종군		E-mail		핸 드 폰			
자택주소				자택전화			
주 요 약·경력				인 명 록 신청여부	직장 ( )/자택 ( )		

◆ **단위별 동문회의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각 단위별 동문회(단과대학별, 학과별, 입학년도별, 직장별, 지부별 등)에서는 단체의 임원진 및 동문님들의 현황이 담겨 있는 자료를 보내주시면 제작에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가족

건국대 의상학과 李仁子교수

남동생·아들·딸·사위·며느리 모두 동문

"허물없는 대화로 자녀의 개성 발굴"

『안녕하세요! 저는 「2인자」입니다』

한국복식학회장, 한국의류학회장, 건국대 생활문화대학장·디자인 대학원장 등을 역임하며 40년간 한국 의류 및 의상학 분야 발전을 위해 공헌한 李仁子(59년 家政大卒)동문. 정년퇴임을 앞둔 李동문이 그녀의 자전적 에세이 수필집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표현한 첫 글귀이다.

30대까지는 일인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40고개를 넘으면서 자신의 이름과 동음이의어인 2인자가 되는 것이 생활철학이 돼버린 李동문은 가정에서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와 제자들이 성장해 일인자가 되도록 옆에서 이끌어주는 2인자의 역할을 지금까지 맡아왔다.

李동문의 어린 시절은 6·25전쟁이라는 소용돌이와 함께 동생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려야했던 아픈 추억이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생존한 남동생 李秉奎(73년 商大卒·美 시카고 TK회사 사장)동문과 6·25전쟁 이후 본 여동생 셋과 함께 李동문은 더 각별한 우애로 어려움을 극복해나갔다. 청주여고 시절, 교수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모교 가정대를 입학한 李동문은 심리학에 심취하면서 의복을 통해 나타나는 성격, 가치관, 감정 등을 연구하는 의상심리학 분야를 전공, 당시 뛰어난 입담으로 각종 방송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이를 널리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또한 병원을 돌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의복과 패션쇼를 열어 의상치료라는 새 분야를 탄생시켰다.

강연 및 각종 행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李동문에게 올해는 여러모로 특별한 한해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1월 11일은 장남인 李相勳(85년 法大卒·Sparks 인터내셔날 대표)동문의 결혼식이 열린 역사적(?)인 날이다. 그 이유는 차남 李相昊(89년 醫大卒·인제대 정형외과 교수)동문이 결혼한지 10년만에 가정을 꾸렸기 때문. 게다가 결혼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 평생 많은 돈을 벌며 이를 남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던 李相勳동문인지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 동료들에게도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었다.

앞줄 좌로부터 **李相昊**동문 내외, **李仁子**동문, **李蕙全·姜忠模**동문 내외.
뒷줄 **吳玲哉·李相勳**동문 내외.

李相勳동문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부는 吳玲哉(87년 美大卒·산업대 교수)동문으로, 3년전 李相勳동문이 업무차 美 Arkansas주에서 주최한 어느 시상식에 참석했다가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한 吳동문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당시 방송프로그램 타이틀 제작을 맡고 있던 李동문은 미국에서 컴퓨터 Art를 전공한 吳동문에게 같이 일하자고 제의, 직장 동료사이에서 차츰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됐다. 현재 공연기획사 대표를 맡고 있는 李相勳동문은 영상사업에도 진출, 곧 멋진 영화도 한 편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듯 다소 극적인 결혼식을 올린 장남 내외보다 더 「영화 같은」 사연으로 맺어진 부부가 있으니 바로 李仁子동문의 장녀 李蕙全(83년 音大卒·숙명여대 교수)·사위 姜忠模(83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동문 내외이다. 피아노를 처음 치자마자 남다른 재능을 보인 李蕙全동문은 서울예고를 수석 졸업한 후 평생의 꿈이었던 피아니스트의 꿈을 펼치기 위해 모교 기악과를 지원했다. 같은 해 姜忠模동문 역시 수석으로 모교 음대에 입학, 역시 피아니스트로서의 능력을 키워갔다. 이들은 대학시절 동아콩쿠르에 나란히 출전해 姜동문이 1위를, 李동문이 2위를 수상하는 등 공공연하게 부딪히는 일도 많았다. 그러나 李동문은 공개적으로, 음악 하는 남자는 결혼상대자로 싫다고 선언해 姜동문은 좋아하는 감정을 뒤로한 채 李동문과 친한 친구로 만 남아야 했다.

이후 각자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석·박사 공부를 하며, 유학시절 전화를 통해 서로간의 고충을 나눴다. 이때까지도 이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이」일뿐 그 이상으로 발전하진 못했다. 그러나 10년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李동문이 잠시 뉴욕에 왔다는 얘기를 들은 姜동문은 자동차로 반나절을 달려와 가슴속에 묻었던 얘기를 털어놓으며 1992년 결혼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악보 없이 바흐의 피아노곡 전곡을 연주하며 음악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姜동문은 현재 李동문과 함께 일년에 두세 번은 꼭 듀오연주회를 열며 제자양성과 함께 1999년 4월부터 시작한 「강충모 바흐 피아노 전곡 시리즈」 음악회를 2003년까지 들려주는 대장정을 감행하고 있다.

반면 평범하게(?) 가정을 꾸린 李仁子동문의 차남 李相昊(89년 醫大卒)동문 역시 범상치 않은 인물. 수학의 귀재라 불렸던 李相昊동문의 원래 꿈은 수학자가 되거나 생명 및 유전공학을 연구하는 학과에 지원하는 것이었다. 특히 고3 시절, 서울대 생물학과 교수를 직접 찾아간 李相昊동문은 왜 생물학을 하고 싶냐는 교수의 질문에 「자신과 똑같은 외모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복제인간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고까지 복제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한 李相昊동문은 가족의 뜻에 따라 의대를 지원했다. 처음엔 적성에 맞지 않아 유학을 갈 생각도 했지만, 척추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의술을 자랑하는 石世一(58년 醫大卒)교수의 귀신같은(?) 수술 장면을 본 후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3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꽤 알려진 척추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는 李相昊동문은 올해 초 美세인트 루이스 의대 교환교수로 갈 예정이라고.

1녀2남 모두 모교 출신인 것에 대해 李仁子동문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과 허물없는 대화를 했을 뿐이라며 특히 『각자 개성이 강한데다 꿈도 하나같이 달라 아이들은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며 자신의 길을 개척했다』고 말한다. 〈表〉

모교소식

해외 최고자문단 「블루리본패널」 보고서

모교 개혁, 한국 발전위해 필수불가결

"효율적 의사결정권 확보·안정적 재원마련 시급"

이날 행사에는 본회 白樂晥고문, 林光洙수석부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朴晟容·朴容晟부회장, 金哲洙논설위원, 李世震사무총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세계 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지향하는 모교는 지난해 10월 헨리 로좁스키 前하버드대 문리대학장, 하스미 시게히코 前도쿄대 총장, 휴고 소넨샤인 前시카고대 총장, 마이클 코완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도날드 제이콥스 前켈로그경영대학원 학장, 로날드 옥스버러 케임브리지대 교수 등 6명을 해외 최고자문단(Blue Ribbon Panel)으로 위촉, 모교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의 연구결과 종합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설명 및 의견교환을 위해 해외 자문위원단이 최근 모교를 다시 방문했다.

지난 12월 19일 힐튼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World class 대학 이렇게 만들자」라는 주제로 열린 「비전코리아 제7차 국민보고대회」에서 블루리본패널은 교수 연구실적과 재정, 교육프로그램의 질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모교가 현재 세계 주요 대학에 비해 크게 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루리본패널은 『서울대가 국가 경쟁력과 대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할 때 서울대 개혁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기금규모 하버드대의 0.5%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모교의 기금 규모는 현재 1억1천3백만달러로, 하버드대(2백7억달러)의 0.5%에 불과하다. 스탠퍼드대(89억달러), 미시간대(34억달러), 위스콘신대(14억달러) 등에도 크게 못미친다. 이들 기금은 대학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교의 예산은 대체로 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며 한해 예산 4억2백만달러 중 1% 남짓인 5백만달러만을 독자적으로 쓸 수 있다. 결국 대학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불가능한 것이다.

모교 도서관 예산은 하버드대의 2천3백만달러, 도쿄대의 1천6백만달러에 턱없이 못 미치는 2백40만달러(약 31억2천만원)에 불과하고 장서수도 하버드대의 4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모교 재학생의 학습 열기도 저조해 수업시간 외에 하루 공부하는 시간이 1~2시간인 학생이 30%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이 26%, 전혀 안한다는 학생도 13%나 됐다.

자연대 논문 도쿄대의 23%

한편 90~99년 모교 자연과학계열 교수들의 1인당 평균 발표 논문은 56건으로 도쿄대 2백48건, 하버드대 2백21건, 케임브리지대 1백43건, 미시간대 1백29건 등에 비해 크게 적었다.

교수들의 논문이 학술지에 인용되거나 교육기관 교재로 채택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교수 1인당 연구 효과성 지수」에서도 모교는 1.6으로 하버드대(13.2) 스탠퍼드대(7.1) 코넬대(6.2)등 미국의 명문 사립대에 크게 뒤진 것은 물론이고 UC 샌타바버라대(3.7) 워싱턴대(2.5) 등 주립대 수준보다 낮았다.

보고서는 모교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의사결정권 확보와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모교 총장을 지낸 5명의 임기는 2.6년으로 하버드대(21년) 미시간대(10.5년) 등 미국 대학의 평균인 7년에 훨씬 못미쳐 독자적인 정책 마련과 집행,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동문 등 참여한 이사회 구성

그 해결 방안으로 교수, 동문, 외부 명망가, 외국인 학자 등으로 이사회(board of trustees)를 구성해 총장의 임면과 대정부 협상, 재정 감독과 평가 등을 맡길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내에 경쟁제도를 도입해 연구실적을 바탕으로 한 평가제도 도입과 해외 학자 유치, 계약제 및 연봉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인문대학

일반인 대상 「공개강좌」

대규모의 인문학 분야 공개강좌가 모교에 최초로 개설된다.

인문대학(학장 權寧民)은 지난 12월 19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상의 「인문학 공개강좌 개설안」이 인문대 전체 교수회를 통과, 올해 하반기에 첫 강좌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껏 일부 대학에서 실용학문 중심의 사이버강좌가 있긴 했지만, 인문학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강의하는 공개강좌는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모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일반인 대상의 사이버 공개강좌다.

4개월을 한 학기로 1년에 3학기 운영되는 이 강좌는 이수한 사람들에게 모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이수학점은 학점은행에도 포함돼 평생교육과 재교육의 취지를 살릴 예정이다.

인문대학은 이번 강좌로 모교가 갖고 있는 폐쇄성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 분야에 남아도는 「박사 실업자」들에게 제 역할을 찾아줄 수 있다는 부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수강학점별 등록금제

2002학년도부터 시행

올해부터 수강학점에 따라 기성회비를 징수하는 「수강학점별 등록금제」가 도입된다.

지난해 11월 30일 발표된 시행안에 따르면 학사과정의 경우 8학기, 석·박사과정 4학기를 마친 재학생 중 기준학점(학사 12학점, 석·박사 6학점) 미만의 학점을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 중 기본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금을 1~3학점, 4~6학점 등 단계별로 분류해 차등 징수하게 된다.

〈燮〉

공과대학

제10회 「훌륭한 공대 교수상」 시상

金震均 교수

韓民九 교수

朱鍾南 교수

공과대학(학장 李長茂)은 지난 11월 30일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001년 「훌륭한 공대 교수상」 시상식을 가졌다.

10회째인 이번 수상자로는 교육상에 기계항공공학부 朱鍾南교수, 학술상에 전기·컴퓨터공학부 韓民九교수, 기술상에 건축학과 金震均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朱교수는 창의공학설계라는 과목을 개발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에 힘쓰고 국제로봇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韓교수는 SCI 등재 외국 정기학술지에 1백2편의 논문, 국내 정기학술지에 1백11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73건의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金교수는 모교 연구공원 마스터플랜 및 창업보육센터 등 건축 설계활동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내 최초 치의학 박물관 개관

구한말 이래 유물 1백50여점 전시

구한말 이래로 우리 나라 근대 치의학의 역사와 귀중한 유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치의학 박물관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근·현대 치의학의 역사와 함께한 모교 치과대학(학장 鄭鍾쭈)은 지난 12월 28일 치과대학 1층 로비에서 치의학 박물관(관장 韓秀夫)을 개관했다.

치과대학 1층에 있는 치의학 박물관에는 40여 평 규모의 전시실에 구한말, 일제시대 1백50여 점의 치의학 관련 유물이 상설 전시된다. 이번 박물관에 전시된 치의학 유물들의 테마는 치과대학의 역사와 유물중심의 치의학 역사로 구성돼 있다.

「열린 박물관」을 지향하는 치의학 박물관에는 특히 치통을 없애준다는 치통 符籍, 일제시대 경성치의학교가 개원했던 저경궁터(소공동 소재) 비석과 비문,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기 전인 구한말 페달의 원리를 이용한 치아를 가는 기구(Foot Engine)와 구한말 인조치아, 틀니 등 당시 선조들이 사용했던 치의학 유물들이 일반인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올 6월말 특허법인 설립

교수 특허 출원·관리 전담

모교(총장 李基俊)가 국립대로는 처음으로 올 6월말쯤 교수의 특허출원 및 관리 업무를 전담할 특허법인을 설립한다.

모교는 이를 위해 법인내 사무국에 특허출원, 기술이전, 산업체와의 계약체결, 사무지원부서 등을 설치하는 한편 발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허출원 여부를 심사할 별도의 전문평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의 직무상 발명은 국유로 간주, 모든 관련 수입이 고스란히 국고로 환수된데다 국가차원의 특허출원 경비 지원도 미미해 해당 발명자나 대학은 특허에 따른 아무 이득도 얻을 수 없어 국유특허출원을 기피해왔다.

모교가 설립할 특허법인은 재단법인 성격을 갖는 특별법인으로 교수 직무상 발명에 의한 것은 물론 기업체와 기술이전계약 체결을 통한 개발기술 등 특허 관련 모든 업무를 대행해 관장하며 이 과정에서 쓰이는 비용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특허법인이 설립되면 특허권은 특허법인이 소유하게 되고, 특허와 관련된 수입은 기술을 개발한 교수와 단과대학, 기업체, 연구소 등이 일정비율로 나눠 가지게 된다.

모교는 또 산업체가 위탁한 연구용역에도 특허권과 특허에 따른 기술료 수입의 일정 부분이 대학과 발명 대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부터 특허권에 대한 법인과 산업체 공동 소유를 명시하는 「표준계약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뜨락

국내 인구구조 급변에 맞춰 노동·복지·교육 대비책 마련해야

朴聖炫(68년 工大卒)모교 자연과학대학 학장

지난해 11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 결과」를 보면 우리 나라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정책 등의 측면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통계 데이터에 근거한 경제 정책 등의 마련은 급하게 서둘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IMF 경제위기를 자초한 것도 외환보유고 등의 경제지표의 변화를 면밀히 감지하지 못하고 이에 걸맞는 대비책을 준비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인구통계가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다음과 같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때이다.

첫째로, 2004년에는 대학입학 연령대상인 18세 인구가 63만명으로 처음으로 대학입학 정원(65만 5천명)보다 적을 전망이며, 2030년에는 현재 대학정원의 73%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인구통계가 주는 시사점은, 대학이 이제는 양적 팽창을 염두에 두지 말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대학의 정원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며, 경쟁에서 밀려 문을 닫는 대학도 생겨나게 될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에도 학생 수에 집착하지 말고 「세계의 대학」으로 성장하려는 목표 아래 교육과 연구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장기발전 비전을 실현해 나갈 때이다.

두 번째로, 우리 나라 인구의 노령화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에 노령인구(65세 이상)가 전체의 7%였으나 2019년에는 14%로 증가해 7%에서 두 배로 증가하는데 걸릴 시간이 19년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걸린 시간이 프랑스는 1백15년, 일본이 24년이 걸렸는데, 이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우리 나라는 작년에 생산연령인구(15~64세) 9.9명당 1인의 노령인구를 부양했으며, 2030년에는 2.8명의 생산연령인구가 1인의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균수명도 작년에는 75.9세였으나 2030년에는 81.5세가 되어 빠른 속도로 우리 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란 예측이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인력활용 차원에서 노령인구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노령인구를 주요 고객으로 하는 산업이 발전할 것이며, 노인복지문제가 주요한 정치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대에서도 노인학, 사회복지학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년층과 노년층을 상대로 한 사회교육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 우리 나라의 인구는 작년에 4천7백만명에서 2013년에 5천만명을 돌파한 후에 2023년에 5천68만명으로 최고점에 도달하고, 그 후에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2050년에는 현재 인구보다 적어져 4천4백33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총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가 심해지면 일본이나 프랑스처럼 경제활력을 잃기 쉽다.

따라서 출산력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노인복지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일부 인구를 세계시장에 나가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라 본다. 서울대의 교육 정책도 세계 속에 나가서 활동하는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외국어도 2개 정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중에서 1년 정도는 외국에서 연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혼 연령층(남 26~30세, 여 24~28세) 인구는 여자보다 남자가 많아 수십년 간 신부감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 적령기를 맞이하는 2011년에는 성비(여자 1백명당 남자 수)가 122.1(2000년 현재 110.5)까지 올라설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성비는 이후 완화되지만 2030년에도 116.0에 달할 전망이다.

이 인구통계가 주는 시사점은 남아선호사상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이라도 여성우대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부를 못 구하는 총각들을 위하여 국제결혼도 제도적으로 손쉽게 이루어지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도 이제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두를 때이다. 인구통계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가 이런 통계를 잘 활용하는 지혜스러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바람직한 공원문화 형성에 책임감 있는 시민 참여 요구돼

吳順煥(84년 環大院卒)서울시청 공원녹지과 자연공원팀장

도시에서 그것도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공원녹지공간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다. 사방이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지쳐 있을 때 어렴풋이 멀리 보이는 오아시스의 발견은 희망을 주게 되며, 마침내 그곳에 도착하여 시원한 물로 갈증을 해소하고 나무 그늘아래 쉬면서 다음의 긴 여정을 준비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대도시에 있어서 푸르름이 있는 공원녹지공간은 바쁜 일상생활로부터 지친 도시민들이 휴식과 위락을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활력을 되찾고 재충전하는 곳이다. 물과 푸르름이 있는 공원녹지는 생태계의 한 연결 고리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곤충과 새, 그리고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공간이 된다.

또한 생활주변에서 자연성이 회복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공원녹지공간의 주요소인 나무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와 자신이 흡수한 물을 원료로 하여 광합성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인 탄수화물을 생산하고 부산물로 산소를 대기중에 내보내게 된다. 녹지의 규모로 볼 때 1만㎡의 녹지는 16톤의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12톤의 산소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성인 21명이 1년간 숨쉴 수 있는 양이며, 질적으로는 인간에게 단 5분간도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경제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는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많은 공원녹지공간이 잠식되었다. 도시화의 역기능적인 요소인 도시문제가 부각되고 환경의 중요성이 이슈가 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개발로부터 보호 또는 보전, 더불어 공장이나 군부대 등 시설 이적지를 공원화하고 도시내의 소규모 자투리땅까지도 공원화하는 등 공원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정책을 펴게 되었다.

흔히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환경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것이기도 하므로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을 미리 고려하는 사회로 바꿔야 한다. 환경은 자연과 인간에 기본을 두고 있으므로 환경을 문화적으로 느끼면 인간과 자연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다.

봄의 신록, 여름의 녹음, 가을의 단풍에서 우리는 자연이 주는 계절의 선물을 받으며 감수성과 따뜻함을 느낀다. 자연은 질병의 치유자라고 한 히포크라테스를 구태여 들추지 않더라도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치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인공적인 요소가 강한 도시환경에서 공원녹지공간은 그 기능과 효과 면에서 볼 때 매우 가치 있고 소중한 공간이다. 특히 공원은 물리적인 자연과 정신적인 문화가 결합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 즉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장소이다.

지방자치와 가치측면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서울시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공원 안에 물리적인 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같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부분에 치중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접근방법으로 다양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공원에서의 문화 만들기를 시도하고 있다.

남산공원 야외식물원과 길동 자연생태공원에서의 자연학습 및 생태관찰프로그램, 천호동 공원에서의 만화·영상·댄스·청소년신문과 같은 동아리 중심의 청소년문화프로그램, 관악산 등 근교 산에서 역사·문화와 자연생태를 해설하는 숲 속 여행프로그램 등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원이용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공원문화를 창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절적이고 이벤트적인 자연·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들이 공원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원의 문화 만들기는 행정기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인 시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원에서는 가장 단순한 쓰레기 줍기 같은 청소부터 시작해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녹지보전운동, 나아가 자연 및 문화체험활동을 지도하는 전문분야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 책임감과 의식 있는 건강한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참여할 때 공원이용은 더욱 활성화되고 아울러 바람직한 공원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직장생활에서 은퇴한 후에 나이 들어서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기에 나 또한 남산사랑(남산야외식물원 자원봉사자 동호인 모임)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공원의 소중함을 느끼며 공원문화가 풍요한 미래를 꿈꾸어 본다.

SNUA OPINION LEADER

고추의 기능성과 약리활성

徐 榮 俊
- 1981년 모교 약대 제약학과 졸업
- 1983년 모교 대학원 석사학위
- 1990년 美위스콘신대 박사학위
- 1990~1992년 美MIT대 박사후 연구원
- 1992~1995년 美예일대 의대 조교수
- 현재 모교 약대 약학과 교수

최근 고추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여성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여성들이 아예 고춧가루나 고추장을 몸에 휴대하며 음식에 뿌려먹는 유행을 낳기도 했다. 흔히들 고추는 강한 매운 맛 때문에 입맛을 돋구며, 지나치게 섭취하면 위장에 큰 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徐榮俊교수를 포함한 여러 학자들이 최근 고추에 대한 새로운 학설을 발표하면서 고추가 특정 질병에 대한 예방효과 및 간암 억제기능이 있음을 입증했다. 이에 徐교수로부터 고추에 대한 다양한 기능과 효과에 대해 들어보았다.

가지과(Solanaceae)의 초본식물인 고추는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향신료이다. 고초, 당초, 번초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학명은 Capsicum annuum이다. 고추는 고온성 작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주로 중부 이남지역에서 재배된다. 인구기준 소비량을 볼 때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고추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중의 하나로서, 국민 1인당 하루 5.1g, 연간 약 2~4㎏의 고추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볼리비아를 포함한 열대 남미지역이 고추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7천년 경 멕시코인들이 야생종 고추를 먹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페루에서는 기원전 2천5백년부터 고추가 재배되었다는 화석 증거가 남아 있다. 콜럼버스(Columbus)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진 고추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거쳐 중부 유럽 국가들로 전파되었으며, 서기 1천5백년 경 필리핀을 거쳐 인도, 동남 아시아와 중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오렌지보다 비타민C 많아

우리 나라에 도입된 경로와 시기는 확실치 않지만, 광해군 6년(1614 년) 이수광이 저술한 「지봉유설」에 고추를 남만초(南蠻椒)라 칭하고 있고, 일본에서 도입되었으니 이를 왜개자(倭芥子)라고도 부르며 간혹 이를 심고 있었다는 기록을 보면, 대략 임진왜란 전후로 추정된다. 한국에 들어온 내력으로 임진왜란 때 왜군이 조선인들을 독한 고추로 독살하려고 가져왔으나, 오히려 한민족의 체질에 맞아 이후 우리 민족이 고추를 즐기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설도 있다.

한편 일본의 여러 문헌에는 고추가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한다. 임진왜란 때 우리 나라에 왔던 풍신수길이 조선에서 고추종자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고려호초라 한다고 「대화본추(1907)」에 기록되어 있다. 민간에서는 장을 담근 뒤 항아리 속에 붉은 고추를 집어넣기도 하며, 아들을 낳으면 새끼줄에 붉은 고추와 숯을 걸어 악귀를 쫓았다.

단순히 음식에 맛과 향을 더하고 미각을 돋구는 기능 외에도 고추는 한방에서 발한, 건위, 구충제로 이용되며, 양방에서는 신경통, 류머티스, 기관지염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철 먼길을 떠날 때 양말이나 신발 속에 고춧가루를 넣어 동상을 예방하기도 했다.

고추는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건강식품이다. 실제로 고추에는 오렌지나 레몬보다 많은 양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며, 당근만큼이나 비타민 A가 듬뿍 들어 있다. 만일 고추를 싣고 유럽으로 향하던 콜럼버스가 고추에 비타민 C가 풍부함을 진작 알았더라면, 과일섭취 부족으로 인해 항해도중 선원들이 괴혈병(scurvy : 비타민 C부족으로 결합조직이 약화되고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게 되는 질병)에 걸려 죽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크림은 통증완화 효과 월등

고추의 독특한 매운 맛은 캅사이신(capsaicin)이라는 알칼로이드 화합물 때문이다. 고추의 종류와 경작 조건에 따라 캅사이신의 함유량은 0.1%에서 1%범위 안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캅사이신은 고추씨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껍질에도 상당량 들어 있다. 캅사이신은 고추의 이차 대사산물로서, 고추의 발육에는 별상관이 없는 물질이나 다른 식물, 동물들로부터 고추를 보호하고 그 씨를 퍼뜨려 종자의 번식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상 포유동물들은 캅사이신의 자극성을 감지할 수 있지만 새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해 고추를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며, 그 결과 고추씨가 이들의 배설물에 섞여 멀리 전파될 수 있는 것이다. 남미원산의 고추가 멀리 떨어진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지역에서도 자라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로 생각된다.

한편 캅사이신은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고 미각을 자극함으로써 함께 섭취하는 다른 음식들의 풍미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학설도 있다. 캅사이신을 용액으로 만들어 피부에 문지르면 마치 불에 덴 것과 같은 기계적 자극을 느끼는데, 이는 통증 전달물질인 「Substance P」가 순간적으로 유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캅사이신은 신경말단에서 방출된 「Substance P」를 고갈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이후의 자극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상태를 초래한다. 캅사이신의 이러한 약리학적 성질을 근거로 이 화합물이 함유된 연고가 진통제로 개발되어 OTC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캅사이신 크림제는 당뇨성 신경통, 류마티스성 관절염, 대상포진, 수술 후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

일찍이 페루사람들은 고추의 분말을 관절염 부위에 발라 사용해왔으며, 기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도 고추는 민간요법에서 통증을 멈추는데 널리 사용되어 왔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통의학, 과학적 이론과 실험적 결과를 근거로 한 현대의학의 접목에 의해 「Zostrix」, 「ToppSation」, 「Axsain」, 「Capzacin P」 등의 상품명으로 고추크림들이 시판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제제들은 대게 0.25% 또는 0.75% 함량의 캅사이신을 주성분으로 한다.

최근에 고추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한동안 고추다이어트 열풍이 불어 닥쳤던 일본열도에서는, 고추를 입에 물고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 여성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고추는 신체의 에너지 대사를 항진시키고 동시에 지방의 생합성을 억제함으로써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 실험 결과, 고지방 식이(食餌)에 고추를 첨가한 사료를 섭취한 쥐들은 고지방 식이만 섭취한 군에 비해 체중증가가 현저히 줄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양도 낮았다. 캅사이신의 경우도 체지방을 줄여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국내 및 일본의 과학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고추가 피부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아프리카 서부지역의 여성들은 「파프리카」라 불리는 붉은 고추의 분말을 욕조에 풀어 넣고 목욕을 했다 한다. 최근 국내에서 1회용 티백에 담긴 고추 차까지 등장했으니, 바야흐로 고추의 전성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다.

흔히 자극성이 있는 매운 음식의 섭취가 위 점막을 손상시켜 만성 위염의 원인이 되고, 결과적으로 위암발생률을 높인다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인들의 경우, 고추가 포함된 매운 음식을 일상생활에서 별로 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위암발생률이 높은 것을 보면 매운 음식을 위암발생의 위험인자로 보기는 어렵다.

일반인들의 잘못된 편견이나 속설과는 달리, 상용량으로 섭취하는 고추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위궤양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이미 생긴 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고추는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위산분비는 억제한다. 한편 고추추출물과 그 매운 성분인 캅사이신을 쥐에 투여했을 때, 아스피린이나 알코올로 유도된 위 점막 손상에 대해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비록 동물실험 결과이기는 하지만, 캅사이신의 위궤양 보호효과는 기존의 궤양치료제인 시메티딘(cimetidine)에 버금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화학적으로 유도된 궤양 외에도 헬리코박터에 의한 위 점막 손상도 고추에 의해 예방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캅사이신이 배양된 헬리코박터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다이어트·궤양억제 기능도

고추 섭취가 상대적으로 많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인들에서는 다른 남방민족들보다 위암이나 대장암의 발생률이 훨씬 낮은데, 이는 고추의 캅사이신이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고 위 점막을 방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서 높은 비율로 위궤양이 발생하는 것은 아마도 이들이 앞서 언급한 싱가포르 내 타 인종들에 비해 고추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멕시코와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도, 매운 고추의 섭취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암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고추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미국에서 위암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매운 음식의 섭취와 한국인의 높은 위암 발생률이 관계가 깊다는 속설은 재고되어야 하며, 오히려 캅사이신의 위장관 보호효과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민족과 마찬가지로 매운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멕시코에서 실시된 역학조사 결과도 고추 섭취량과 위암발생과는 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음식의 세계화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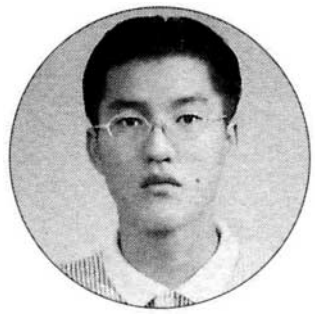
실험동물을 이용한 몇몇 연구에서, 고추 엑기스 및 캅사이신을 처리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종양발생의 빈도가 증가한 결과를 보인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동물실험 결과가 사람에 있어서의 고추의 발암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오히려 고추나 캅사이신이 발암억제제 또는 항암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캅사이신은 항산화, 염증 억제 작용을 나타냄으로써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막고 종양 촉진이나 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발암성 화학물질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 간에서 대사되어 반응성이 높은 중간체로 활성화된 후 표적세포의 DNA를 공격함으로써 암화 과정을 개시하는데, 캅사이신은 발암원 물질들의 대사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발암과정을 억제한다. 필자의 연구실에서 수행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캅사이신은 위에서 생성되는 대표적 발암물질인 나이트로소아민의 돌연변이성을 억제하고, 한편 암세포에 처리시 아폽토시스를 통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함으로써 항암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추는 한국국민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김치와 고추장을 담그는데 가장 필수적인 향신료이다. 히포크라테스는 『식품을 의약품처럼, 의약품은 식품처럼(Let food be your medicine, medicine be your food)』이라고 했다. 고추의 기능성과 약리활성을 과학적 방법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전통식품을 산업화하고 더 나아가 세계화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추에 들어있는 캅사이신을 비롯한 각종 화합물들의 생리활성 및 약리작용을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규명함으로써 신약 후보물질들의 도출에도 일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반환점 돌아와 낮잠 즐기는 토끼 보는듯



李鍾熏 : 李弘中(71년 工大卒·화성산업 대표)동문 차남

나는 미국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부터 다녀서, 지금은 UC. Irvine.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내가 다니는 대학교는 미국 내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ranking으로 따지자하면) 50위 안에 겨우 드는, 그러니까 서울대처럼 한국에서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최우수 대학에 비교하면 보잘 것 없는 학교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교와 대학생활에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자부하는 것은 대학교 이름이 아니라 지난 4년간의 노력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취직하고자 하는 대개의 회사들도 대학의 이름보다는 다니는 동안의 성적이나 취득한 자격증들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교에 입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나,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서 어떤 지식을 얻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와 형이 서울대 졸업생이라서 서울대인이 가족과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비교적 잘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서울대에 입학한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함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당연한 결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단 입학만 하게 되면(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재능은 —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진대 — 더 이상 쓰여지기를 거부하는 골동품처럼 되어버리는 것 같다. 서울대생의 70%가 하루 2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는 최근의 기사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때보다 결코 더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 않은 형의 대학시절에서 그런 일면을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생활을 모두 경험한 바로, 미국의 대학교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그야말로 「공부」를 하는 곳으로 인식돼 있다. 내가 다닌 UCI에서도 시험기간이 아닐 때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려면 미리 자리를 예약해야 할 정도로 학생들의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대단하다. 기본적인 재능의 측면에서 서울대를 입학한 학생들이 UCI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입학 이후 서울대생의 모습을 보며 반환점을 돌아 오수(午睡)를 즐기는 토끼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이 결코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한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대학은 고등학교 때 찾아낸 학생들의 재능을 더욱 발전시켜주는 기관이다. 반면,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 나라 유수 대학들은 재능이 있는 학생을 구분, 분리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정작 그러한 재능을 살리는 역량에 있어서는 미국의 대학들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소득수준 자체가 다른 나라인 미국의 대학과 제반 시설들만 놓고 평면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겠지만 교수 1인당 논문 출판 횟수나 교수 1인당 학생에 미치는 효과성 등의 시설 외적인 면에서도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수 1인당 논문 출판 횟수가 1위인 일본 도쿄대 2백48건에 비해 서울대는 56건으로 나타났고, 교수 1인당 학생에게 미치는 효과성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하버드대의 13.2점에 비해 1.6점에 그쳤다)

어쨌든 서울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이며, 그러한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현재 각계각층에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대를 향해 쏟아지는 것들이 찬사이든 비난이든지 간에 서울대에 우리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수(午睡)를 아껴 달리는 서울대인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이는 대학자체의 개혁도 수반돼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서울대를 다니고 있고 앞으로 다니게 될 우수한 인재들의 각고의 노력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단지 이름뿐인 서울대가 아니라 진정한 상아탑에서 수양한 인재들 말이다.

박 성 희

문화산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TV & 냉장고 & 세탁기 사이즈의 의미

일산으로 이사한 지 얼마 안됐을 때입니다. 분양 받은 상태로 입주한 뒤 식탁 등을 바꾸고 거실에 스포트라이트 2개를 달기 위해 동네의 전기상에 부탁했지요.

시공차 온 전기가게 아저씨는 집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약간 무시하는 투로 『텔레비전이 작네요』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살림이 별 볼일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듯했지요.

모자 장사는 머리 크기, 치과의사는 치아의 상태로 사람을 판단한다고들 합니다. 전기업자는 한 집안의 수준을 TV를 비롯한 가전제품의 종류와 크기로 가늠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거실 가득한 책을 보면서 은근히 뿌듯해 하곤 하던 제 기분은 잠시 망가졌었지요.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이런 「황당한」 경우를 당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빌트인 가전품」이라고 해서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스레인지 세탁기는 물론 벽걸이TV까지 설치돼 있는 수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옵션인 곳도 있지만 아예 분양가에 포함시키는 데도 많은 듯합니다.

빌트인(Built-in) 가전품이란 일반 가전품을 실내 인테리어나 다른 가구와 어울리도록 만든 붙박이 가전제품을 말합니다. 집안에서 주방의 비중이 커지면서 가전품의 색상과 소재 등을 조절해 주방과 거실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수납장식 냉장고가 인기를 얻으면서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시작돼 중대형 아파트로 퍼지다 최근엔 소형아파트에도 도입됐지요. 그 결과 빌트인 가전품 수요는 지난해 3천5백억원 정도였으나 2005년엔 1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랍니다. 이 때문에 가전업체들은 붙박이 전용브랜드를 내놓고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외제가 장악중인 고급 빌트인 가전시장의 점유율을 올해 10%에서 2003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한다는 보도고, 삼성전자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백60평 규모로 「빌트인 전시장」을 열었답니다. 수납장 형태의 냉장고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김치냉장고 가스오븐레인지 식기세척기 등을 30평부터 60평형까지로 나눠 전시했다는군요.

가전제품을 아파트 실내에 맞추어 미리 설치하면 깔끔하고 보기에도 좋습니다. 요즘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그야말로 반하게 됩니다. 특히 부엌이 너무 예뻐 주부라면 누구나 넋을 놓게 되지요. 또 이사하면서 쓰던 걸 그냥 가져가야 하나, 새것으로 바꿔야 하나, 기왕 사는 것 제일 좋은 걸로 사야 하나, 중간정도 걸로 만족해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른 집 제품과 크기나 모양 브랜드를 비교 당할 일도 없지요.

그러나 세상에 다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 빌트인 가전품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분양가에 포함된 만큼 「내돈」 내고 내가 사는 것이지요. 묶어서 파는 만큼 따로 사는 것보다 싸야 할텐데 따져 보면 싸지 않은 듯합니다.

또 이사할 때 가지고 갈 수 없고, 꼭 필요하지 않은 걸 살수도 있지요. 부엌용품의 경우 따로 빼내기 어려워 수리하기 곤란하고 위치를 바꿀 수도 없지요. 겉보기가 좋은 건 틀림없지만 예쁜 옷이 입어보면 불편한 적이 있듯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따릅니다.

유행은 어느 것이든 개성과 독자적 사고를 빼앗는 일이 잦습니다. 옷도 그렇지만 인테리어나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트인 가전품을 설치하면 공간을 다소 넓게 쓸 수 있고, 깔끔해 보이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번쯤 뒤집어 생각해보면 가뜩이나 획일화된 아파트의 사각 공간에서 가전제품마저 마음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남과 똑같은 것을 쓰게 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평수엔 똑같은 크기의 세탁기와 냉장고 오븐레인지가 강요되는 셈이기도 하구요.

게다가 가전 회사들이 건설업자 및 주방기기 업자들을 상대로 장사하게 되면 개인소비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힘을 못쓰게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면 지나친 걱정일까요?

새로운 물건, 새로운 방식, 새로운 형태는 눈을 번쩍 뜨이게 합니다만 막상 써보고 적용해보면 모두 좋은 것만은 아닐 때도 있습니다.

IMF 이후 아파트 분양이 안돼 업체마다 울상을 짓고 있을 때 「월드 메르디앙」이라는 건설업체는 크고 화려한 부엌으로 주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모았습니다. 수납장식 냉장고를 설치해주고 가스레인지와 함께 전기난로를 설치한 조리대를 따로 만들어주고….

이후 아파트를 분양하는 업체마다 주방을 늘리고, 빌트인 가전품 등을 사용해 아름답게 만드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글쎄요? 크고 넓고 가전품이 다양한 주방이 여성들의 첫 눈길을 확 사로잡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크고 넓은 부엌, 조리대가 두세 군데씩 설치된 부엌이 필요한 것일까요? 주부들의 사회진출은 갈수록 늘고 따라서 외식 비중이 급증하는 마당에 말입니다.

현재 분양중인 아파트에 사용자들이 입주할 때쯤이면 상황은 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이 분양 시점이 아닌 입주 시점의 사회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 설계도 하고, 모델하우스도 만들고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게 인기라더라』에만 연연, 남이 하는 식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 하지말고 말입니다.

집을 선택하는 소비자 역시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혹」하지 말고, 식구들의 생활습관, 입주할 때의 가족 상황, 주부의 가사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했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건설업체는 물론 각종 생산업체들이 정신 번쩍 차리고 제대로 된 집, 국제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될 테니까요.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회
金秉順이사 연임·李炯均이사 선임

金秉順 이사

李炯均 이사

재단법인 관악회(이사장 金在淳)는 지난 12월 21일 신라호텔 23층 프라도홀에서 金在淳이사장, 洪性大상임이사, 孫一根·李晟遠·朴明潤·郭守根·李鍾基·鄭八道·金秉順이사, 朴英俊감사, 본회 林光洙수석부회장, 李炯均회보논설위원, 李世震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林光洙수석부회장이 특지장학금으로 6구좌(3억원)를, 재미동창회 吳仁錫명예회장이 1구좌(5천만원)를 2002년 2월까지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2002년 신규 사업으로 동문 또는 동기회와 모교 재학생을 결연시켜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안건심의를 통해 임기가 만료된 金秉順이사를 연임시켰으며, 공석중인 이사에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本報 論說委員)동문을 선임했다.

필리핀지부
李舜培회장 재선출

필리핀지부동창회(회장 李舜培)는 지난 12월 1일 「코리아 팰라스」식당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李舜培(62년 法大卒·SELMA어패럴 대표)회장과 鄭宗燮(66년 工大卒·ADB선임연구원)부회장이 참석자 만장일치로 재선출됐다.

한편 이날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모교의 고마움과 동문 서로간의 우의를 더욱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부
兪東濬회장 재선임

수원지부동창회(회장 兪東濬)는 지난 12월 4일 호텔캐슬 다이아몬드홀에서 본회 林光洙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동수원병원 邊尙鉉이사장, 沈載德수원시장, 許文道 前통일원 장관, 林昌烈 경기도지사, 金東建수원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기총회 및 「서울대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국민의례에 이어 동창회 부회장을 맡아오면서 모교의 발전은 물론 동창회의 활성화에 기여해 온 趙明來(74년 獸醫大卒)·金溶植(78년 醫大卒)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兪회장은 인사말에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듯이 국적은 변해도 학적은 영원하다』고 말하고 『조국의 미래가 서울대인의 미래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고 역설했다.

본회 林光洙수석부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매년 총동창회 주최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보여주신 수원지부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상호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여 모교의 발전에 힘이 되는 동문, 국가 大事에 큰 몫을 감당할 수 있는 동문이 되자』고 역설했다.

2001년 사업 및 결산과 200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兪東濬회장을 재선임했으며, 부회장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춘천지부
韓達鮮회장 선출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李敏燮)는 지난 12월 18일 춘천베어스타운 의암홀에서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韓達鮮(64년 醫大卒·한림대 총장)회장(사진)은 『4백명이 넘는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창회를 위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 동창회의 정관 개편과 조직 정비를 통해 동창회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회장 및 총무 선임은 韓회장에게 위임했다.

안동지부
林雨夏회장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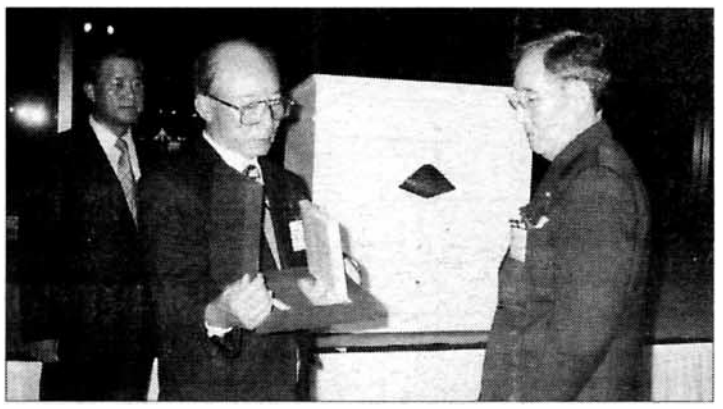
안동지부동창회(회장 金浩東)는 지난 12월 13일 안동대 교직원 식당 「진석관」에서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와병중인 金회장의 후임으로 林雨夏(62년 齒大卒·임치과의원장)동문(사진)을 만장일치로 신임 회장에 선출했으며, 부회장 및 총무 선임은 林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지난 12월 16일 전임 金浩東회장이 지병인 위암으로 별세했다.

마산지부
송년회·총회 개최

마산지부동창회(회장 李 進)는 지난 12월 12일 마산 로얄호텔 무궁화홀에서 동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安在鏞(50년 醫大卒·순안병원장)고문의 건배사로 시작된 만찬에서 경남대 합주단 연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여흥의 시간을 가졌다.



부산지부
「서울대의 밤」 행사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文貞奎)는 지난 12월 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安相英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동문 2백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 「서울대의 밤」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그동안 부산지부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쓴 崔正煥(55년 商大卒·우성식품 회장)동문(右)을 신임 명예회장에 추대했다. 安相英(63년 工大卒)부산광역시장의 축사에 이어 禹遠亨(56년 醫大卒·우산부인과 원장)고문이 送舊迎新의 뜻을 기리며 건배사를 했다.

이어 2부 「서울대의 밤」 연주회에서 金賢心(89년 音大卒)동문의 뮤지컬 캐츠 중 「메모리」를 독창으로 시작해 張仁錫(89년 音大卒)동문이 테너 독창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다. 이날 林炳元(82년 音大卒)동문이 영화주제가 「My way」와 「Moon river」를 바이올린 연주로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김포지부
蘇淳浩동문 기금 1백만원 출연

김포지부동창회(회장 金鍾逸)는 지난 12월 12일 「동해일식집」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勇進(79년 藥大卒·마송약국 약사)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2000년 및 2001년 주요행사 및 결산 보고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서 蘇淳浩(84년 醫大卒·중앙정형외과 원장)동문이 즉석에서 동창회 기금으로 1백만원을 기탁했다.

부천지부
회원수첩 제작예정

부천지부동창회(회장 白承權)는 지난 12월 10일 「중동숯불갈비」식당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2001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안건으로 제시된 회원수첩 발행은 회원들의 사진을 넣어 제작하기로 합의했다.

경영대학원
경영인 대상 및 강의상 시상

경영대학원동창회(회장 禹德昶)는 지난 12월 12일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도라지홀에서 대한테크시스템 孔大植사장, 세계인재개발원 李徽永원장, 금복주 金泓殖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겸 제2회 서울대 경영인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국내외 전문경영인으로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문에게 수여하는 「서울대 경영인 대상」 시상식에서 3백여 회사의 회계 감사와 경영컨설팅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신한회계법인 李燦河(67년卒)회장과 국내 순수기술로 하이테크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한독분말야금 李秉宰(69년卒)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올해 처음 제정한 「서울대 경영대학 강의상」 수상자로 지난 학기에 모교 재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강의평가에서 최우수 교수로 뽑힌 경영대 金祥薰(88년 經營大卒)교수를 선정, 상패와 함께 1천만원의 연구지원비를 전달했다.

한편 禹회장은 동창회 활동보고를 통해 세미나 클럽 신임 회장에 인간개발연구원 張萬基(68년卒)원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亨〉

상과대학

「올해의 교수상」 선정…1억 지원

高회장이 朴교수(右)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상과대학동창회(회장 高炳佑)는 지난 12월 4일 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 및 제1회 「올해의 교수상」시상식을 거행했다.

이날 총 1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로 모교 사회대 경제학부 朴埈用(78년 自然大卒)교수를 선정했다.

朴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모교에 대한 사랑을 이토록 실감한 적이 없다』며 『동문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연구에 매진, 국내 경제학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본회 金在淳회장은 『영광된 상을 수상한 朴교수 뒤에는 당신의 대성을 바라는 서울大人들의 熱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며 『개혁의 21세기에 우뚝 서게 될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번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는 모교 사회대 경제학부 및 경영대 교수들로 구성된 모임을 통해 선정됐으며, 후보자들로부터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받아 점수를 매긴 뒤 최고점자를 가렸다.

또한 원로 선배에서 후배들에 이르기까지 전동문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연구지원비는 경제·경영학 분야의 학술연구에 쓰여지도록 제정됐다.

의과대학

제5회 함춘의학상 시상식 개최

좌로부터 朴容昡·李鍾郁·李吉女·李惠媛·金宗星·李寬熙동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는 지난 12월 17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및 제5회 함춘의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함춘의학상 경과보고에 이어진 이날 시상식에서 연구업적부문에 울산의대 金宗星(80년卒)교수와 인하대 李寬熙(82년卒)교수, 해외부문에 美 제퍼슨의대 李惠媛(61년卒)교수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金宗星교수는 「시상 뇌졸중 후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혼합성 불수의 운동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경학적 결손 및 그 결손의 회복 정도와의 관계를 비교 분석했으며, 李寬熙교수는 「TGF-β1 유전자가 포함된 섬유아 세포를 이용한 관절 연골의 재생」이란 논문을 통해 퇴행성관절염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李惠媛교수는 지난 10년간 1천여 명이 넘는 재미교포 B형간염 보균자들의 질병 발전상을 관찰, 「재미교포 B형간염 보균자들의 발병과 질병 발전에 관한 역학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시상식을 마친 후 2000년 함춘의학상 연구계획부문을 수상한 李啓榮동문과 이날 수상자들은 준비된 슬라이드를 통해 각자의 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대학원

신임 회장에 具聖會동문 선출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金秀哲)는 지난 12월 17일 풍전호텔 장미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보건분야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동창회를 위해 헌신해온 李亮載(62년卒)·李時伯(64년卒)·南喆鉉(64년卒)동문 등 3명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시상했으며, 전임 간사인 나승식(98년卒)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2001년도 업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에 이어진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具聖會(81년卒·서울보건대학 교수)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 감사에 金潤信(75년卒)·金成元(81년卒)동문을 재선임했으며,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유임시켰다.

2002년 동창회 사업의 일환으로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금도 마련하기 위해 벽걸이용 「회원패」를 제작, 신청자에 한하여 유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사범대학

자랑스런 동문에게 꽃다발 증정

사범대학동창회(회장 李璨敎)는 지난 12월 14일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李揆澤국회의원과 모교 曺昌燮학장의 축사에 이어 2001년 동창회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에 李相周대통령 비서실장·인천시 羅根炯교육감·한국교육방송공사 金學泉사장·한국경제신문 崔埈明사장·교육인적자원부 崔熙善차관·감사원 盧鈺燮사무총장·曺永達대통령 교육문화 수석비서관 등을 선정,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신문대학원

安瑛燮교수 특강

신문대학원동창회(회장 趙容直)는 지난 12월 18일 소공동 「야래향」에서 2001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南善顯총무이사의 동정 소개에 이어 명지대 安瑛燮(76년卒)교수가 「새 국제질서와 언론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식품공학과

소식지 e-mail로

식품공학과동창회(회장 洪德杓)는 지난 12월 7일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동문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洪회장과 모교 劉尙烈학과장의 인사말에 이어 모교 金載昺(50년卒)교수 및 前이화여대 李瑞來(55년卒)교수가 축사를 했다.

이어 올 한해동안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68학번 동문들에게 洪회장이 감사패를 수여했으며,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韓相郁부회장이 모교 재학생 김하윤·오은중군에게 각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한편 이날 사업보고를 통해 동문들의 동정 및 근황이 담긴 「식공 소식지」를 우편이 아닌 개인 e-mail로 보내기로 했으며, 학부 출신뿐만 아니라 대학원 졸업생 및 재학생들도 동창회에서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초청하기로 합의했다.

최고산업전략과정

「회원 수첩」 발간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李淳鍾)는 지난 12월 7일 역삼동 「삼원가든」에서 모교 姜泰晋교수, 동창회 高昇熹총간사장, 曺元鎬재무간사, 黃德南홍보간사, 金政永총무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송년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동문들의 연락처가 담긴 2002년 회원 수첩을 연내에 제작 배부하기로 했으며, 2002년 1월 11일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자동문회

자랑스런 동문 시상

전자동문회(회장 李梓旭)는 지난 11월 30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동문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李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林光洙(본회 수석부회장)공대동창회장 및 모교 李鍾珏(48년卒)명예교수가 축사를 했다.

이날 행사에서 후학 양성을 위해 평생을 바친 모교 李鍾珏·朴松培(51년卒)·安秀吉(57년卒)·李忠雄(58년卒)명예교수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동창회의 위상을 드높인 「자랑스런 동문상」 수상자로 모교 安秀吉명예교수, 李秉基(74년卒)연구처장, 삼성전자 尹鍾龍(66년卒)부회장, 앤씨소프트 金澤辰(89년卒)사장을 선정했으며, 2001년 8월부터 시작된 모교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10억 모금 운동에 동참한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陳大濟(71년卒)사장, 소예산업 黃賢(71년卒)사장, 李梓旭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001년도 동창회 결산보고 및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 결산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은 모교 成宏模(65년入)교수의 멋드러진 색소폰 연주와 함께 합창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모임예정

법과대학
1월 17일 신년인사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裵命仁)는 오는 1월 17일 오후 6시 서울프라자호텔 덕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35-3614)

경일법회
1월 21일 신년하례회

경일법회(회장 金汶熙)는 오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역삼동 소재 아세아도원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88-2049) 〈表〉

동정

수상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성천문화재단 이사장)=지난 12월 7일 힐튼호텔에서 열린 양정총동창회 「2001 양정인의 밤」 행사에 올해를 빛낸 養正人賞을 수상함.

▲**金相廈**(49년 文理大卒·삼양사 회장·本會 顧問)= 지난 12월 12일 일본 정부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훈일등(勳一等) 서보장(瑞宝章)을 받음.

▲**朴英子**(50년 師大卒·세계시인 시낭송문학연구회장)=지난 11월 22일 그리스 「International Society of Greek Writers」로부터 「Prize of Sokrates」를 받음.

▲**安瑛培**(55년 工大卒·도성건축 고문)=지난 12월 1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예총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제15회 예총 예술문화상(건축부문)을 수상함.

▲**咸正鎬**(57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2월 10일 제53회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黃秉冀**(59년 法大卒·실크 앤드 뱀부 단장)=지난 12월 19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예총 송년의 밤 행사에서 제15회 예총 예술문화상(음악부문)을 수상함.

▲**沈憲燮**(60년 法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12월 13일 모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암(洌巖 朴鍾鴻) 기념사업회(회장 蘇光熙)가 수여하는 제20회 열암학술상을 수상함.

▲**李相周**(60년 師大卒·대통령비서실장)=지난 12월 11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엄홀에서 열린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82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하며 프로야구 탄생에 기여한 공로로 「프로야구 20주년 공로패」를 받음.

▲**金重石**(62년 音大卒·단국대 교수)=지난 12월 6일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음악협회 주최 제20회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음.

▲**李鍾祥**(63년 美大卒·모교 박물관장)=최근 월간 미술시대가 선정한 「2001, 한국을 빛낸 미술인」에 선정됨.

▲**權東烈**(63년 法大卒·퍼시스 사장)= 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디자인경영부문 최우수상을 받음.

▲**宋永在**(63년 師大卒·서울과학고 교장)=지난 12월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3회 서울교육상(중등교육부문)을 수상함.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會長)= 지난 12월 12일 롯데호텔에서 재경 진주고 동창회로부터 「올해의 자랑스러운 진고인상」을 받음.

▲**金石基**(64년 工大卒·대경기계기술 회장)=지난 11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받음.

▲**姜松植**(64년 師大卒·한우물 유통 대표)=지난 12월 11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서민연합회 주최 제8회 「올해의 위대한 서민대상」 시상식에서 국민건강계도상을 받음.

▲**魏聖復**(64년 商大卒·조흥은행장)=지난 1월 4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신문사가 제정한 제11회 다산금융상 대상인 최고경영자상을 수상함.

▲**金 洹**(65년 工大卒·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음.

▲**明浩根**(65년 法大卒·쌍용양회 사장)=지난 12월 18일 힐튼호텔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공로로 동탑 산업훈장을 받음.

▲**尹鍾龍**(66년 工大卒·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브랜드경영부문 최우수상을 받음.

▲**琴章泰**(66년 文理大卒·모교 종교학과 교수)=지난 12월 27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다산학술재단이 수여하는 제2회 다산학술상 대상을 수상함.

▲**徐東喜**(70년 美大卒·건국대 교수)= 최근 제24회 한국미술문화대상 초대작가상을 받음.

▲**白明鉉**(71년 文理大卒·모교 화학부 교수)=지난 12월 18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올해의 여성 과학기술자상(자연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됨.

편집주간석

도약과 웅비의 壬午年 새해를 맞아
보람과 성취의 한해로 가꾸시길 기원하면서
세배드립니다.

▲**金暎世**(74년 美大卒·이노디자인 사장)=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李舜鍾**(74년 美大卒·모교 디자인학부 교수)=지난 12월 18일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산업포장을 받음.

▲**金聖權**(74년 醫大卒·모교 병원 진료부원장)=지난 12월 21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난 20년간의 환자정보를 지식관리시스템으로 체계화한 데이터웨어하우징을 구축한 공로로 「보건복지 신지식인상」을 받음.

▲**韓弘子**(75년 師大卒·시인)=지난 12월 13일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시집 「잃어버린 시간들」로 조선문학사가 제정한 제2회 「조선시문학상」을 수상함.

▲**李相殷**(75년 醫大卒·모교 비뇨기과학교실 교수)= 지난 11월 29일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린 미국기초비뇨기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함.

▲**金基文**(76년 自然大卒·포항공대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화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鄭忠始**(76년 工大卒·오미아코리아 사장)=지난 11월 30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3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철탑 산업훈장을 받음.

▲**林平龍**(76년 音大卒·KBS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지난 12월 6일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음악협회 주최 제20회 대한민국 작곡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음.

▲**李魯鍾**(76년 大學院卒·SK그룹 전무)=지난 12월 20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중앙대 언론동문회가 수여하는 「2001년 중앙대 언론인상(홍보부문)」을 수상함.

▲**李美媛**(77년 人文大卒·경희대 교수)=지난 12월 29일 중앙대 공연영상예술원 캠퍼스에서 한국연극평론가협회가 수여하는 2001년 여석기 평론가상을 받음.

▲**黃聖浩**(78년 音大卒·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12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최 「2001년 무용·문학·미술·연극·영화·음악·평론 등 7개 부문의 최우수 예술인」 시상식에서 음악부문 최우수 예술인상을 수상함.

▲**崔茂榮**(79년 自然大卒·모교 물리학과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물리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趙弘燮**(80년 工大卒·한겨레신문 기자)=지난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2001년 환경인상」 시상식에서 제11회 환경인상(녹색언론인)을 수상함.

▲**崔毅柱**(80년 藥大卒·고려대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생명과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郭決鎬**(80년 環大院卒·환경부 기획관리실장)=지난 12월 11일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2001년 환경인상」 시상식에서 제11회 환경인상(녹색공무원)을 수상함.

▲**徐連洙**(82년 自然大卒·성균관대 교수)=지난 12월 14일 「2001년 생명공학의 해」를 기념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자상을 수상함.

▲**金東洙**(83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건축·토목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朴忠模**(83년 師大卒·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 박사)=지난 12월 14일 「2001년 생명공학의 해」를 기념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자상을 수상함.

▲**柳誠彦**(84년 自然大卒·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박사)=지난 12월 14일 「2001년 생명공학의 해」를 기념해 과학기술부로부터 생명공학자상을 수상함.

▲**方孝忠**(85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기계·항공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黃準默**(86년 自然大卒·고등

모교 물리학부 李洙宗교수
국내 첫 「유네스코 과학자賞」 수상

국내 물리학자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산하 기관이 주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모교 자연과학대학 물리학부 李洙宗(82년 師大卒)교수(사진)가 지난 12월 6일 유네스코 산하 국제이론물리연구센터(ICTP)로부터 「2001년 ICTP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ICTP상을 한국 과학자가 받게 된 것은 처음이다.

1983년 제정된 ICTP상은 전세계적으로 물리·수학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45세 이하의 과학자에게 주어지며 수상자를 고에너지, 고체물리, 수학 등 3개 분야에서 3년에 한번씩 선정한다. 李교수는 고에너지 분야에서 6번째 수상자가 됐다.

비라소로 ICTP소장은 李교수에게 보낸 전문에서 『우주론, 입자물리학, 초끈이론에 걸쳐 9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李교수는 사범대 물리교육과를 졸업한 후 미국 캘리포니아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토프트 교수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과학원 교수)=지난 12월 4일 제8회 한국과학상(수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玄澤煥**(87년 自然大卒·모교 응용화학부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화공·생명공학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李竝浩**(87년 工大卒·모교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지난 12월 11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주관한 제5회 젊은 과학자상(전자·정보기술분야) 수상자로 선정됨.

▲**朴贊法**(26기 AMP·아시아나항공 사장)=지난 12월 12일 경희대 관광대학원이 수여하는 제1회 경희관광인상을 수상함.

▲**趙芳來**(40기 AMP·LG파워 사장)=지난 12월 18일 힐튼호텔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 주최로 열린 제1회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공로로 산업포장을 받음.

▲**鄭然東**(48기 AMP·한전KDN 사장)=지난 12월 12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국사보기자협회 주최 한국사보대상 시상식에서 대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함.

▲**金基文**(51기 AMP·로만손 대표)=지난 12월 18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회 산업디자인진흥대회에서 디자인경영부문 우수상을 받음.

▲**金炳哲**(45기 ACAD·서울고 교장)=지난 12월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제23회 서울교육상(중등교육부문)을 수상함.

이동·선임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충북협회장·工大同窓會長·本會首席副會長)=지난 12월 1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시민대표로서 이웃과 주변의 고충을 위원회에 전달하고 국민고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문을 해주는 한편 위원회의 활동 등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명예 옴부즈맨」에 위촉됨.

▲**鄭根謨**(59년 文理大卒·호서대 총장)=지난 12월 7일 창립된 한국위험통제학회 초대 회장에 선출됨.

▲**高 建**(60년 文理大卒·서울시장)=지난 12월 1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상하수도협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愼鏞廈**(61년 文理大卒·모교 사회학과 교수)=지난 12월 10일 백범기념사업협회 부설기관으로 발족한 백범학술원 초대 원장에 선임됨.

▲**李壽成**(61년 法大卒·前국무총리)=지난 12월 10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서울고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13대 회장에 선출됨.

▲**金鏞秀**(63년 文理大卒·한성대 교수)=지난 12월 10일 한국고서연구회 제8대 회장에 선출됨.

▲**梁 璿**(63년 文理大卒·고려대 교수)=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함.

▲**金 旻**(64년 音大卒·모교 음대 학장)=2002년 10월 18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제4회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 주니어부 심사위원에 위촉됨.

▲**朴容晟**(65년 商大卒·대한상공회의소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13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에서 IOC 위원에 내정됨.

▲**郭熙魯**(67년 工大卒·숭실대 교수)=지난 12월 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1회 대한전기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姜正一**(68년 農大卒·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최근 한국농업경제학회 제22대 회장에 선출됨.

▲**金昇圭**(68년 法大卒·광주고검 장)=지난 12월 17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됨.

▲**李弘揆**(68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중앙일보 「과학칼럼」 칼럼니스트에 위촉됨.

▲**朴基憲**(69년 工大卒·한국타이어 상무)=지난 1월 1일 한국타이어 부사장에 선임됨.

▲**安國全**(69년 農大卒·前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장)=지난 12월 18일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진흥원장에 임명됨.

▲**柳明桓**(70년 法大卒·외교통상부 장관특별보좌관)=지난 12월 9일 신설된 對테러 및 아프가니스탄 문제 담당대사에 임명됨.

▲**李榮蘭**(71년 法大卒·숙명여대 교수)=최근 열린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 겸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선출됨.

▲**盧宗熙**(71년 敎大院卒·한양대 교수)=최근 한국교총에서 개최된 한국교육행정학회 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취임함.

▲**文昌克**(72년 文理大卒·중앙일보 이사)=지난 12월 21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총회에서 제49대 총무에 선출됨.

▲**吳濟世**(72년 法大卒·前국민고충처리위 상임위원)=지난 12월 4일 인천시 행정부시장에 내정됨.

▲**崔海元**(74년 農大卒·前네오빌 사장)=지난 12월 4일 데이콤시스템테크놀로지(DST)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李棋培**(75년 法大卒·법무연수원 기획부장)=지난 12월 18일 광주고검 차장(검사장)에 임명됨.

▲**柳子孝**(75년 師大卒·SBS 라디오본부장)=지난 12월 18일 프랑스 특파원 출신 전·현직 언론인 모임인 파리클럽 회장에 선임됨.

▲**姜興植**(77년 醫大卒·모교 방사선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20일 분당 모교병원 개원준비단 부단장에 선임됨.

▲**金哲鎬**(80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지난 12월 20일 분당 모교병원 개원준비단 진료기획처장에 선임됨.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 여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 력 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 광 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 「협력」 「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선서 접수** :
   1) 접수마감 : 2002년 1월 31일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2년 3월 15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 在 淳·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행사·출간

▲**丁奇洙**(51년 文理大卒·한국AMOPA 협회장)=지난 11월 22일 프랑스문화원에서 「파키스탄과 한국」 및 「프랑스혼장의 역사」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12월 5~17일 서초구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10명의 작가를 초대해 「한·일 현대 섬유 매체전」을 가짐. 또 12월 20~31일 한국 금속작가 미주순회 귀국전을 개최함.

▲**閔丙畯**(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12월 28일 충북대 대강연실에서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음.

▲**李仁浩**(55년 文理大入·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지난 12월 13~14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한국과 세계의 만남」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14일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음악회를 가짐.

▲**全泳杓**(60년 文理大卒·신구대학 교수·출판문화학회장)=지난 12월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정치문화연구회가 주관한 「출판인 쇄진흥법(안) 제정과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함, 또 22일 한국언론재단에서 제11회 학술포럼을 갖고 광주대 金基中교수와 강원대 南潤秀교수의 화갑 기념논문집 봉정식을 가짐.

▲**曺慶鍾**(60년 獸醫大卒·한국소비자연맹 부산회장·부산지방의료분쟁조정위원장)=지난 12월 7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의료분쟁조정 대시민 토론회를 가짐.

▲**任德淳**(62년 師大卒·충북대 교수)=지난 12월 4일 외교안보연구원 정책개발과정에 초청돼 공관장급 외무공무원들에게 「지정학과 지리정치적 시각」을 주제로 특강함.

▲**沈利澤**(63년 工大卒·대한항공 사장·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지난 12월 11일 캐피탈호텔에서 「방위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한 대안강구」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가짐.

▲**李秉根**(63년 文理大卒·모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국어학회장)=지난 12월 19~21일 국제청소년센터 제28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를 개최하고, 「連語(collocation)」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本報論說委員)=지난 12월 17일 한국언론재단에서 李成春 前 고려대 석좌교수를 초청, 「한국언론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金明子**(66년 文理大卒·환경부 장관)=지난 1월 16~18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ASEM 환경장관회의에 참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나라의 노력 및 아시아와 유럽간 환경파트너십 구축방안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힘.

▲**李長茂**(67년 工大卒·모교 공대 학장)=지난 12월 16~22일 미국의 대학 및 연구소의 교육, 연구 협의차 미국 미시건대와 포드자동차연구소 등을 방문함.

▲**朴容昡**(68년 醫大卒·모교 병원 장)=지난 12월 19일 종로구 이화동 동사무소를 찾아 독거노인을 위해 써달라고 농협 상품권 21매(420만원 상당)를 전달함.

▲**李相駽**(69년 工大卒·에너지경제연구원장·한국환경정책학회장)=지난 12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환경기술·산업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함.

▲**朴惠蘭**(69년 文理大卒·여성학자)=최근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토대로 쓴 생활 에세이 「나이듦에 대하여」(웅진닷컴刊)를 펴냄.

▲**朴世逸**(70년 法大卒·모교 국제지역원 교수·한국노동경제학회장)=지난 12월 8일 모교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함.

▲**宋仁誠**(71년 醫大卒·모교 내과학교실 교수·모교 병원 불우환자돕기 함춘후원회장)=지난 12월 14일 모교 병원내 임상의학연구소 1층 휴게실에서 불우환자 진료비 마련을 위한 「음악과 사랑이 있는 일일찻집」을 열었다.

▲**金錫俊**(73년 工大卒·이화여대 교수·비전@한국 공동대표)=지난 12월 21일 연세대 상남경영관에서 「한국 공적자금 제도의 현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가짐.

▲**吳然天**(74년 文理大卒·모교 행정대학원장)=지난 12월 14일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정책지식센터」 개소식을 가짐.

▲**林周煥**(76년 行大院卒·순천향대 교수·한국관광개발학회장)=지난 12월 15일 경희대 종합강의동에서 「사회경제적 위기와 관광산업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가짐.

▲**崔龍建**(77년 美大卒·화가)=최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에서의 5년여 생활 일기 「조금은 가난해도 좋다면」(푸른숲刊)을 펴냄.

▲**李珉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한국화가)=지난 11월 17~25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자연 – 생성과 소멸」 한·일 교류전에서 「공명필선의 화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함.

▲**李忠範**(82년 法大卒·정해복지 이사장)=지난 12월 13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해복지 15주년 기념 책자 출판기념회」 및 베·한 정해기술학교 운영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디너쇼를 가짐.

▲**趙泰玄**(83년 大學院卒·중소기업청 운영위원·배재대 겸임교수)=지난 12월 8일 코엑스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한국무역포럼 정기총회 및 제1회 세미나에서 「중국의 WTO가입 의미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함.

▲**安惠鮮**(89년 音大卒·중앙대 강사·피아니스트)=지난 12월 3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개최해 스크리아빈, 프로코피에프, 무소르그스키 등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색채감 가득한 음악을 선사함.

▲**尹 衡**(91년 音大卒·뉴욕시립오페라단 단원)=지난 1월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영국 BBC방송 오페라 출연, Sullivan 콩쿠르 입상, 샌프란시스코 오페라단 오디션 합격, 워싱턴 오페라단 입단 등을 기념해 축하음악회를 가짐.

▲**丁皓鎭**(92년 音大卒·한세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지난 1월 13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李碩埈(95년 音大卒·KBS교향악단 호른 연주자)동문 등과 함께 「호른,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연주회」를 열어 브람스, 리게티, 김현민 등의 작품을 선보임.

▲**鄭均和**(36기 AMP·정커뮤니케이션 대표·청주대 겸임교수)=지난 12월 19~25일 인사동 운보갤러리에서 手話문화·스포츠센터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인기 연예인 수화사진전 및 초대 작가 작품전」을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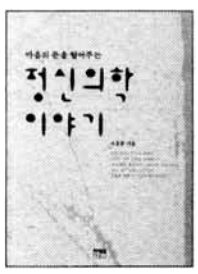
▲**安鎬元**(6기 EPHPM·대한한의사협회 홍보실장)= 최 근 미국 Faith대학교에서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음.

〈정리 安興燮기자〉

新 刊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정신의학 이야기

—崔君東 著



정신과 전문의 崔君東(79년 醫大卒·한별병원장) 동문이 마음이 아픈 환자뿐만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 정신과나 심리학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정신의학 안내서를 펴냈다.

이 책은 3부로 나눠 1부에서는 성격과 체질, 무의식, 혼란스러운 사춘기 등 정신의학의 일반적 지식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스트레스, 화병, 히스테리, 우울증, 정신분열증 등 각종 질환을 설명했다. 또 3부에서는 시험노이로제, 관음증과 섹스중독, 집단따돌림, 테러와 폭력 등 사회현상을 진단했다. 〈한울刊·값12,000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김만식(97년 工大卒)군·김현희 양=1월 20일 12시 30분.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 2001년 11월 4일~2001년 11월 25일·一般 : 2001년 11월 14일~2001년 11월 28일〉

회 장 단

▲고 문 李姬鎬=107만원
▲고 문 金鍾泌=10만원
▲부회장 李奭熙=50만원
▲부회장 李龍兌=100만원
▲부회장 李金器=100만원
▲부회장 姜敏求=100만원
▲부회장 朴容晟=100만원

상임이사

▲李璨教 사대동창회장=20만원
▲金正吉 음대동창회장=20만원
▲金秀哲 보대원동창회장=20만원
▲金相賢 ACAD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강유정(95년 音大卒)=20만원
▲고현성(89년 工大卒)=20만원
▲김광숙(69년 師大卒)=20만원
▲김선환(71년 法大卒)=20만원
▲김제필(59년 文理大卒)=20만원
▲김한용(25기 AIP)=20만원
▲노정학(77년 師大卒)=20만원
▲문제길(56년 工大卒)=20만원
▲유승렬(7기 EPHPM)=20만원
▲윤석용(43기 ACAD)=20만원
▲이세진(73년 法大卒)=20만원
▲이현재(53년 商大卒)=20만원
▲정상옥(76년 農大卒)=20만원
▲한동주(74년 美大卒)=20만원
▲허관예(60년 師大卒)=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박만순㊽ 한길특허법률 변리사

◇看護大學

▲이정자㊾ 충무병원 부원장

◇經營大學

▲김문수㊹ 국회의원

◇工科大學

▲김긍환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수㊹ 효성T&C 고문
▲김노수㊷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주㊻ 서울대 명예교수
▲김선동㊸ S-Oil 회장
▲김윤규㊾ 현대아산 사장
▲김은영㊶ 前과학기술자문회의
▲김찬욱㊾ S-Oil 고문
▲박상돈㊿ LG산전 본부장
▲박상훈㊼ SK 상무
▲박성현㊽ 서울대 자연대학장
▲백영학㊸ 前전자통신연구소
▲신현우㊿ (주)옥시 사장
▲안경수㊹ 한국후지쯔 사장
▲여인희㊸ 오리엔탈종합전자 대표
▲윤석구㊼ 해외석유개발協 부회장
▲이면우㊽ 서울대 교수
▲이석규㊸ 한국능률협회 인증원
▲이원섭㊿ 포철기연 사장
▲이재건㊸ 우인화학 사장
▲임만직㊿ 한국MJL 대표
▲장기욱㊽ 前한국전력기술 대표
▲정태용㊽ 대한건설협회 기술부
▲황규승㊽ 고려대 교수
▲황인석㊷ 현대전자산업 전무
▲황인호㊿ 한기 종합건축 대표

◇農科大學

▲권원중㊶ 대림자동차공업 고문
▲김진팔㊷ 前미성농약 대표
▲손원교㊿ 강원대 교수
▲유일웅㊶ 세미니스아시아 부사장
▲이경준㊶ 서울대 교수

◇文理科大學

▲구월환㊼ 세계일보 편집국장
▲길현익㊺ 前서강대 교수
▲김 구㊸ 극동상공 대표
▲김현철㊶ 해운대여고 교장
▲노건일㊹ 인하대 총장
▲박성훈㊸ 대통령 비서관
▲박운서㊸ 데이콤 부회장
▲송업교㊺ 아태경제연구소
▲유보일㊹ 보성고 교장
▲이덕주㊶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이종하㊷ KBS 위성스포츠국
▲임병석㊽ 前국제문제연구소
▲천양철㊾ 연합뉴스 상무
▲최성규㊹ 진주무역 대표
▲표순승㊽ 건국대 경영대학장

◇美術大學

▲곽원모㊿ 중앙대 교수
▲김원중㊸ 前대전여고 교장
▲정창섭㊶ 서울대 명예교수

◇法科大學

▲권기수㊼ 변호사
▲김유후㊸ 변호사
▲동상홍㊽ 변호사
▲민수광㊹ 현대건설 전무
▲신 건㊸ 국가정보원장
▲안번일㊺ 前감사원 사무총장
▲양동관㊶ 대구고법 부장판사
▲윤여옥㊷ 前중앙고 교장
▲이대순㊼ 한국고등교육학회장
▲이석형㊼ 변호사
▲이시윤㊽ 법무대학원
▲이인기㊽ 국회의원
▲임성수㊹ 수출입은행 차장
▲정해운㊼ 경기대 교수
▲차동천㊾ 한솔제지 부사장
▲최병륜㊿ 변호사
▲허규철㊼ 고려감정평가법인 소장
▲허익렬㊼ 변호사
▲현명관㊸ 삼성물산 회장
▲홍성좌㊻ 도심공항터미널 고문
▲홍순우㊾

◇師範大學

▲고병교㊻ 육사 체육처장
▲김지자㊸ 서울교대 교수
▲문병학㊹ 상호신용연합회장
▲박노빈㊾ 삼성에버랜드 부사장
▲윤덕중㊽ 경남대 교수
▲이영수㊺ 교수신문사 발행인
▲이환복㊺ 삼성고 교장
▲전용근㊽
▲조건상㊿ 前충북대 명예교수
▲허관예㊿ 前공지중 교장

◇商科大學

▲강봉균㊾ 한국개발연구원장
▲박병윤㊸ 국회의원
▲박영복㊸ 우빈 대표
▲배종렬㊺ 삼성물산 사장
▲성홍제㊽ 前태화항공해운 사장
▲이경태㊿ OECD 대사
▲이병식㊶ 공인회계사
▲전철환㊶ 한국은행 총재
▲정교관㊶ 교보생명 상임고문
▲조현택㊹ 스판덱스PU 사장
▲최경국㊷ 前대신생명 부회장

◇獸醫科大學

▲구본훈㊽ 대성기업
▲이기주㊼ 조흥건설 부회장
▲장천석㊼ 중앙물산상사 대표
▲최준표㊽

◇藥學大學

▲김길수㊺ 이화여대 학장
▲남승국㊽ 건일약품 공장장
▲박사룡㊽ 변리사
▲이홍석㊷ 서울제약 전무

◇音樂大學

▲박인수㊽ 서울대 교수
▲조삼진㊷ 건국대 교수

◇醫科大學

▲김진복㊽ 백병원 위암센터원장
▲노동두㊶ 백제병원장
▲박명희㊸ 서울대 교수
▲박상용㊸ 서부병원 이비인후과
▲윤해근㊻ 윤중의원장
▲이도영㊾ 충무병원장
▲이종욱㊸ 서울대 의대학장
▲정종환㊷ 마산복음병원
▲허봉렬㊼ 서울대 교수

◇齒科大學

▲강영만㊶ 은성치과원장
▲김기호㊶ 김기호치과원장
▲김낙형㊸ 성신치과원장
▲김행원㊻ 김행원치과원장
▲서정기㊻ 서정기치과원장
▲성백균㊶ 성백균치과원장
▲안병근㊽ 한강성심병원
▲유재석㊹ 유재석치과원장
▲이상철㊶ 경희대 교수
▲장계순㊸ 장치과원장
▲황오현㊻ 황오현치과의원장

◇大學院

▲이진표㊸ 시티은행 상무
▲정문기㊸ 삼일회계법인 상무

◇經營大學院

▲김환종㊿ 우영산업 회장

◇保健大學院

▲김송전㊷·명지대 교수
▲이양재㊷ 경기대 교수

◇司法大學院

▲지헌법㊹ 변호사

◇新聞大學院

▲이제훈㊶ 중앙일보 사장

◇行政大學院

▲조남호㊸ 서울시 서초구청장

◇최고경영자과정

▲남궁석㊷ 국회의원

◇국가정책과정

▲최선영㊻ 국회의원

일 반

◇人文大學

▲고언숙㊷ ▲김우형㊻ ▲김정호㊺
▲민동홍㊶ ▲박내석㊿ ▲박현철㊻
▲배영수㊻ ▲변형석㊾ ▲신남식㊾
▲유용선㊻ ▲이선영㊺ ▲이유경㊾
▲이인성㊺ ▲이재구㊽ ▲이창화㊻
▲임영서㊶ ▲정기평㊽ ▲조응래㊼
▲조해숙㊾ ▲주영두㊺ ▲채 완㊻

◇社會科學大學

▲강경식㊷ ▲강병구㊿ ▲고승현㊾
▲권 일㊸ ▲권동준㊺ ▲권승일㊼
▲권혁진㊾ ▲김교문㊼ ▲김동진㊷
▲김민정㊸ ▲김상우㊼ ▲김영관㊿
▲김영님㊿ ▲김용직㊸ ▲김정식㊹
▲김정주㊺ ▲김태동㊼ ▲김혜숙㊻
▲김희남㊷ ▲남기욱㊻ ▲남승우㊿
▲박광운㊾ ▲박규헌㊶ ▲박문구㊺
▲박상규㊽ ▲박인철㊻ ▲박재완㊼
▲박정수㊺ ▲박주현㊸ ▲박찬욱㊻
▲박치완㊺ ▲서재호㊸ ▲성기훈㊼
▲안재석㊻ ▲안창호㊾ ▲오호일㊸
▲유병서㊺ ▲유성용㊽ ▲유진석㊺
▲윤 환㊹ ▲윤계근㊷ ▲윤기헌㊼
▲윤영호㊻ ▲윤일성㊺ ▲윤정모㊼
▲이덕용㊼ ▲이만수㊿ ▲이명섭㊾
▲이상율㊾ ▲이수원㊺ ▲이승하㊻
▲이정현㊻ ▲이해승㊻ ▲임세희㊺
▲장환빈㊼ ▲전주현㊹ ▲정기철㊶
▲정병기㊽ ▲정병찬㊶ ▲정성인㊷
▲정영훈㊾ ▲정흥순㊾ ▲조 석㊶
▲조장현㊶ ▲최동진㊽ ▲최완수㊸
▲하경희㊽ ▲하대승㊼ ▲하상원㊼
▲한인재㊼ ▲한재훈㊽ ▲홍진표㊼
▲황선웅㊻ ▲황윤환㊼

◇自然科學大學

▲강문기㊻ ▲강병국㊺ ▲강신룡㊷
▲고관수㊹ ▲고지범㊼ ▲공용택㊶
▲권준형㊿ ▲김선철㊾ ▲김신원㊻
▲김정식㊿ ▲민구봉㊾ ▲박성준㊾
▲박종근㊼ ▲박태준㊽ ▲박택곤㊸
▲박혜경㊾ ▲유광호㊼ ▲윤석원㊹
▲이장우㊻ ▲이준영㊺ ▲장태식㊿
▲정동회㊻ ▲정희경㊾ ▲현동우㊻
▲황치옥㊽

◇家政大學

▲권양자㊷ ▲박옥금㊾ ▲육완진㊶
▲최병희㊸ ▲황지혜㊶

◇看護大學

▲강춘자㊼ ▲김영숙㊾ ▲박경숙㊻
▲박계수㊶ ▲심윤경㊽ ▲양혜숙㊷
▲오은경㊷ ▲유명숙㊽ ▲조경숙㊾
▲진현주㊼

◇經營大學

▲강명수㊺ ▲강창호㊶ ▲권상훈㊺
▲권태근㊷ ▲김동석㊻ ▲김선운㊼
▲김선호㊼ ▲김의형㊾ ▲김재준㊻
▲김정섭㊻ ▲김종환㊽ ▲김창호㊼
▲김태암㊻ ▲김형철㊻ ▲나상호㊾
▲노정익㊻ ▲민영훈㊶ ▲박영목㊽
▲박정석㊶ ▲박채균㊶ ▲송윤한㊼
▲신정호㊹ ▲오선영㊼ ▲오태동㊿
▲윤 영㊾ ▲이강훈㊼ ▲이동호㊶
▲이승훈㊸ ▲이정규㊸ ▲이종민㊼
▲이현봉㊻ ▲이현철㊼ ▲전재형㊼
▲최기보㊻ ▲최원일㊻ ▲홍영준㊹
▲홍유진㊾

◇工科大學

▲강민성㊺ ▲강수준㊽ ▲강영훈㊻
▲강주성㊽ ▲고석수㊽ ▲고영관㊿
▲고정석㊻ ▲고주석㊺ ▲고현성㊾
▲공용문㊼ ▲구두학㊺ ▲구영곤㊹
▲구창환㊼ ▲국천표㊻ ▲권순학㊸
▲권혁민㊹ ▲김경덕㊸ ▲김경화㊸
▲김광민㊻ ▲김광백㊺ ▲김광선㊷
▲김광수㊸ ▲김규철㊻ ▲김기홍㊽
▲김동욱㊶ ▲김동하㊾ ▲김만석㊻
▲김수형㊺ ▲김여근㊻ ▲김영범㊹
▲김영중㊿ ▲김영찬㊸ ▲김우종㊷
▲김유훈㊻ ▲김인재㊸ ▲김임성㊽
▲김정길㊸ ▲김정수㊸ ▲김정용㊻
▲김정호㊺ ▲김종범㊻ ▲김주호㊺
▲김준호㊾ ▲김준희㊺ ▲김지현㊺
▲김진경㊺ ▲김진철㊿ ▲김찬식㊺
▲김창훈㊷ ▲김철원㊽ ▲김춘경㊹
▲김충락㊽ ▲김택중㊿ ▲김한중㊷
▲김호대㊿ ▲김호영㊻ ▲김효원㊸
▲김흥근㊿ ▲김희준㊿ ▲나양섭㊺
▲남인현㊶ ▲도복준㊼ ▲류계하㊷
▲마국철㊷ ▲문영준㊽ ▲문정호㊶
▲문제길㊺ ▲민상열㊸ ▲민승기㊾
▲박 찬㊻ ▲박건유㊹ ▲박경배㊹
▲박광만㊶ ▲박구연㊿ ▲박남수㊿
▲박동성㊷ ▲박병일㊸ ▲박병준㊺
▲박상서㊼ ▲박상휘㊾ ▲박석호㊺
▲박성혁㊷ ▲박영건㊾ ▲박영길㊷
▲박영수㊸ ▲박운종㊹ ▲박장영㊹
▲박종명㊻ ▲박종필㊿ ▲박찬호㊸
▲박형규㊾ ▲박형순㊺ ▲박환정㊹
▲박희선㊶ ▲박희재㊹ ▲방철배㊻
▲백기남㊷ ▲백남기㊸ ▲변성우㊻
▲서동기㊷ ▲서동준㊽ ▲서용원㊼
▲서윤수㊽ ▲설인환㊺ ▲성진동㊾
▲손부한㊻ ▲손완주㊾ ▲송한식㊻
▲신상묵㊿ ▲신원기㊷ ▲신철순㊸
▲신철영㊽ ▲신현길㊹ ▲신현두㊿
▲안복신㊿ ▲안승우㊹ ▲안용수㊼
▲안홍삼㊿ ▲양석희㊻ ▲오영민㊹
▲유욱주㊻ ▲유정수㊶ ▲유태용㊺
▲윤승중㊺ ▲윤용수㊹ ▲이강우㊸
▲이건주㊶ ▲이규원㊽ ▲이균철㊺
▲이달곤㊼ ▲이덕표㊹ ▲이도영㊽
▲이동수㊸ ▲이명환㊹ ▲이방업㊿
▲이병수㊶ ▲이봉환㊷ ▲이석경㊷
▲이석구㊸ ▲이성규㊼ ▲이성현㊽
▲이세중㊺ ▲이영근㊻ ▲이영수㊻
▲이영욱㊼ ▲이영조㊻ ▲이영주㊾

▲이영준㊼ ▲이영찬㊽ ▲이완수㊽
▲이용근㊸ ▲이용탁㊺ ▲이원복㊽
▲이원표㊻ ▲이원표㊻ ▲이의택㊽
▲이재건㊻ ▲이재환㊿ ▲이정명㊹
▲이정수㊺ ▲이정우㊺ ▲이종극㊼
▲이종웅㊶ ▲이태수㊶ ▲이해철㊽
▲이희도㊶ ▲임석균㊹ ▲장길주㊹
▲장병주㊾ ▲장용진㊹ ▲장원초㊽
▲장주호㊽ ▲장진태㊿ ▲전광열㊻
▲정동명㊹ ▲정석윤㊼ ▲정용권㊽
▲정장훈㊶ ▲정종제㊿ ▲정진구㊸
▲정충길㊹ ▲정호일㊽ ▲정희섭㊶
▲조건일㊾ ▲조두현㊿ ▲조성중㊹
▲조승목㊶ ▲조영주㊽ ▲조혜경㊼
▲조희제㊺ ▲진종원㊸ ▲차태석㊼
▲천성록㊸ ▲천정기㊽ ▲최경환㊽
▲최규형㊶ ▲최동훈㊺ ▲최상호㊾
▲최상훈㊺ ▲최영택㊷ ▲최은순㊷
▲최정근㊾ ▲태흥식㊻ ▲하동호㊿
▲하성기㊺ ▲하종현㊸ ▲한규택㊼
▲한동섭㊸ ▲한상기㊷ ▲한성덕㊺
▲한응학㊺ ▲함병운㊷ ▲허남섭㊾
▲허해만㊸ ▲현봉섭㊹ ▲홍도천㊸
▲홍순민㊺ ▲홍윤식㊹ ▲홍창완㊶
▲홍철기㊹ ▲황 연㊸ ▲황대석㊺
▲황수언㊻ ▲황인범㊽ ▲황종원㊸

◇農科大學

▲강우상㊶ ▲강인석㊺ ▲강정구㊹
▲강정일㊽ ▲강창수㊼ ▲강창식㊷
▲강창완㊻ ▲강효석㊽ ▲고미진㊽
▲공재환㊷ ▲구본길㊼ ▲권정현㊷
▲김기철㊼ ▲김명주㊽ ▲김민순㊽
▲김상수㊼ ▲김용호㊹ ▲김원진㊷
▲김재인㊻ ▲김정규㊻ ▲김종덕㊾
▲김지선㊽ ▲김진수㊼ ▲김풍진㊽
▲박동진㊸ ▲박시형㊶ ▲백승언㊽
▲변양석㊸ ▲서승찬㊻ ▲손성호㊷
▲송종익㊾ ▲신성화㊾ ▲안치일㊿
▲양승엽㊻ ▲오성근㊼ ▲용환운㊶
▲유석린㊻ ▲유종명㊽ ▲윤여창㊾
▲이강세㊹ ▲이경휘㊾ ▲이관선㊽
▲이두이㊿ ▲이무영㊿ ▲이문재㊽
▲이범일㊻ ▲이석우㊸ ▲이성섭㊸
▲이수만㊽ ▲이용익㊻ ▲이익수㊹
▲이재문㊺ ▲이종명㊹ ▲이태호㊼
▲이풍우㊶ ▲이호진㊼ ▲이황의㊺
▲이효승㊹ ▲임용택㊷ ▲장일형㊸
▲정경진㊶ ▲정문섭㊺ ▲정상욱㊻
▲정영호㊸ ▲정종수㊹ ▲정주영㊹
▲조범호㊹ ▲최연호㊽ ▲최영규㊾
▲최윤용㊸ ▲최희석㊹ ▲한경희㊽
▲한상국㊶ ▲한상봉㊸ ▲황인근㊶

◇文理科大學

▲강황석㊺ ▲공종원㊷ ▲김 승㊺
▲김남기㊷ ▲김만옥㊸ ▲김병각㊼
▲김선회㊷ ▲김영권㊼ ▲김용진㊸
▲김용태㊻ ▲김우철㊶ ▲김윤권㊹
▲김윤철㊶ ▲김정석㊸ ▲김정환㊻
▲김찬중㊺ ▲김태일㊻ ▲김택곤㊸
▲박무인㊿ ▲박영은㊹ ▲박재일㊺
▲박정기㊿ ▲박정웅㊿ ▲박종만㊸
▲박종술㊶ ▲박홍규㊻ ▲배길훈㊿
▲배명국㊷ ▲백병기㊽ ▲백영근㊾
▲변수일㊸ ▲서재찬㊾ ▲서홍수㊼
▲성세열㊸ ▲성우경㊷ ▲손동섭㊹
▲손창조㊺ ▲송창범㊺ ▲신건수㊺
▲신장효㊸ ▲안상진㊸ ▲안석주㊼
▲오동휘㊸ ▲온준철㊽ ▲이강웅㊼
▲이규호㊹ ▲이금세㊸ ▲이동욱㊶
▲이문규㊺ ▲이방환㊾ ▲이번영㊶
▲이병국㊸ ▲이상희㊹ ▲이승희㊹
▲이우석㊼ ▲이장우㊶ ▲이종기㊻
▲이종철㊻ ▲이진욱㊺ ▲이채우㊹
▲이희택㊺ ▲임응식㊸ ▲임학기㊶
▲장문호㊷ ▲전병학㊽ ▲정기호㊼
▲최성재㊿ ▲최영부㊼ ▲최정숙㊼
▲최정일㊸ ▲최종덕㊻ ▲허남성㊹
▲홍문표㊸ ▲홍숙자㊿

◇美術大學

▲강주연㊼ ▲곽용태㊻ ▲권기동㊼
▲권미경㊻ ▲권애경㊺ ▲권혜자㊻
▲김민경㊸ ▲김영길㊼ ▲김익수㊸
▲김정혜㊺ ▲김지열㊿ ▲나성숙㊺
▲노숙자㊻ ▲문경원㊽ ▲박종규㊸
▲유근준㊽ ▲유양자㊼ ▲유영일㊼
▲유호종㊺ ▲윤혜준㊼ ▲이명재㊿
▲이정희㊻ ▲이철주㊼ ▲이환범㊼
▲장화진㊸ ▲전영철㊸ ▲정연석㊾
▲조윤희㊼ ▲한동주㊹

◇法科大學

▲강종운㊾ ▲강태형㊶ ▲고형규㊷
▲구상진㊷ ▲권오기㊼ ▲김경원㊹
▲김근조㊻ ▲김대성㊺ ▲김병문㊻
▲김봉학㊹ ▲김선환㊶ ▲김영대㊼
▲김영욱㊻ ▲김우진㊼ ▲김주영㊼
▲김해산㊹ ▲나동호㊺ ▲도재성㊿
▲박경순㊻ ▲박순철㊼ ▲박준선㊾
▲박희수㊹ ▲백낙륜㊺ ▲서복현㊿
▲서영호㊿ ▲서헌진㊹ ▲성백현㊷
▲성시탁㊻ ▲손수일㊽ ▲송재웅㊼
▲신 홍㊷ ▲신국환㊸ ▲신창민㊹
▲안영도㊾ ▲양명조㊸ ▲여상원㊶
▲오기평㊼ ▲유 현㊽ ▲윤수길㊶
▲윤영철㊶ ▲윤태방㊹ ▲이강수㊾
▲이건호㊶ ▲이광민㊼ ▲이기석㊿
▲이순우㊿ ▲이승철㊺ ▲이은자㊶
▲이정구㊺ ▲이진홍㊿ ▲임상규㊹
▲임순철㊶ ▲임종섭㊺ ▲정 창㊺
▲정 철㊺ ▲정경호㊾ ▲정선명㊾
▲정영일㊼ ▲정옥균㊷ ▲정진우㊼
▲정태익㊺ ▲정호열㊽ ▲조재건㊼
▲조재선㊿ ▲주병국㊼ ▲최병태㊹
▲최선호㊸ ▲최영문㊽ ▲최재원㊼
▲최춘근㊻ ▲한문철㊺ ▲함영섭㊶
▲황영선㊾ ▲황운영㊾

◇師範大學

▲강성주㊺ ▲고미형㊾ ▲곽진영㊾
▲구준회㊿ ▲권성진㊶ ▲권순용㊺
▲권혁봉㊿ ▲김경자㊼ ▲김광숙㊾
▲김국태㊸ ▲김귀화㊺ ▲김봉군㊹
▲김석훈㊾ ▲김성식㊶ ▲김성옥㊸
▲김소연㊾ ▲김연옥㊺ ▲김완복㊻
▲김용선㊶ ▲김은숙㊶ ▲김접술㊻
▲김정용㊷ ▲김진경㊼ ▲김태곤㊷
▲김태영㊿ ▲김혁곤㊸ ▲김호진㊻
▲나근형㊷ ▲노정학㊼ ▲박균제㊷
▲박대휘㊼ ▲박명숙㊽ ▲박병기㊺
▲박영덕㊸ ▲박옥주㊹ ▲박인기㊷
▲박정윤㊷ ▲방재욱㊺ ▲봉정모㊻
▲서정덕㊿ ▲손연수㊸ ▲송미현㊸
▲신동성㊶ ▲신상철㊾ ▲심광현㊷
▲심낙기㊹ ▲안승룡㊷ ▲안영열㊼
▲안준천㊷ ▲오상규㊼ ▲오석운㊻
▲오성록㊿ ▲오수량㊻ ▲오정세㊹
▲왕세균㊷ ▲우근룡㊾ ▲유영채㊹
▲윤경식㊽ ▲윤소영㊾ ▲이경희㊼
▲이기석㊸ ▲이도선㊺ ▲이상익㊶
▲이성호㊷ ▲이순원㊽ ▲이영남㊹
▲이영선㊺ ▲이인화㊼ ▲이재국㊸
▲이재완㊻ ▲이종신㊺ ▲이태억㊸
▲이현순㊼ ▲이효건㊿ ▲이흥탁㊹
▲임원자㊻ ▲임재홍㊶ ▲장병지㊶
▲장종택㊾ ▲전병헌㊻ ▲정재완㊸
▲정정수㊼ ▲정홍대㊼ ▲제귀연㊹
▲조병완㊼ ▲조형우㊹ ▲차형준㊾
▲최낙준㊻ ▲최병순㊹ ▲최원규㊸
▲최윤경㊼ ▲최현섭㊺ ▲하현준㊷
▲한난숙㊺ ▲한미섭㊺ ▲한태화㊾
▲한홍자㊺ ▲허윤구㊼ ▲황선운㊽

◇商科大學

▲강원구㊽ ▲계영희㊾ ▲고현욱㊷
▲권안식㊷ ▲김문한㊸ ▲김영호㊹
▲김인곤㊻ ▲김인호㊺ ▲김재현㊸
▲김정웅㊹ ▲김중수㊿ ▲남궁혁㊹
▲남대우㊹ ▲노광표㊼ ▲민경효㊷
▲민병관㊹ ▲박순일㊸ ▲박영철㊸
▲박영호㊶ ▲박찬홍㊻ ▲백훈상㊶
▲송인제㊿ ▲신동규㊹ ▲신정도㊼
▲심재석㊹ ▲안일성㊹ ▲양승우㊷
▲엄치섭㊽ ▲오진석㊻ ▲오휘명㊽
▲윤복현㊻ ▲이길호㊾ ▲이만용㊾
▲이문범㊹ ▲이상훈㊸ ▲이용언㊺
▲이충희㊺ ▲이현재㊸ ▲장기욱㊻
▲장세원㊷ ▲장지상㊽ ▲정 용㊺
▲정기영㊶ ▲정조흥㊺ ▲조장희㊿
▲조택영㊺ ▲최남식㊺ ▲홍동진㊷

◇獸醫科大學

▲김종건㊾ ▲김종태㊷ ▲김한태㊷
▲문 웅㊽ ▲문종복㊿ ▲박성권㊽
▲박영춘㊺ ▲방극승㊽ ▲서영철㊹
▲송영길㊶ ▲엄영호㊺ ▲이성엽㊺
▲이승용㊾ ▲이한길㊺ ▲장 영㊾
▲정용면㊼ ▲최홍렬㊸ ▲홍문표㊿

◇藥學大學

▲강기세㊸ ▲권영환㊽ ▲김기주㊷
▲김동현㊿ ▲김성오㊶ ▲김은영㊸
▲김재왕㊾ ▲김희경㊻ ▲박경렬㊸
▲박명환㊼ ▲박성영㊹ ▲박성준㊿
▲박종탁㊼ ▲서준석㊶ ▲심규장㊹
▲옥치완㊺ ▲원용한㊷ ▲윤광수㊸
▲은종필㊿ ▲이승후㊶ ▲이오직㊹
▲이재섭㊿ ▲이재호㊼ ▲이홍재㊷
▲이희운㊶ ▲정숙기㊽ ▲정희경㊽
▲조윤호㊷ ▲한연해㊼ ▲허길우㊽

◇音樂大學

▲강병항㊶ ▲강유정㊺ ▲강준택㊼
▲강지윤㊽ ▲강효선㊽ ▲구본주㊷
▲김계화㊷ ▲김금수㊿ ▲김동신㊿
▲김명희㊹ ▲김병찬㊸ ▲김서경㊾
▲김선자㊽ ▲김연희㊹ ▲김연희㊽
▲김영옥㊾ ▲김은경㊽ ▲김인영㊹
▲김정아㊹ ▲김지혜㊷ ▲김현정㊷
▲나혜경㊶ ▲남명화㊷ ▲문병찬㊶
▲박규원㊻ ▲박윤신㊾ ▲백사론㊺
▲서승미㊸ ▲서영인㊸ ▲서혜영㊿
▲석문주㊿ ▲송윤옥㊿ ▲송치경㊼
▲신정애㊶ ▲신주련㊸ ▲신혜윤㊸
▲안준천㊽ ▲안지현㊺ ▲양현주㊿
▲오광호㊹ ▲원호선㊽ ▲윤의중㊼
▲이 연㊿ ▲이경미㊺ ▲이미혜㊻
▲이승신㊾ ▲이영희㊼ ▲이재선㊽
▲이종희㊸ ▲임선혜㊽ ▲임성미㊽
▲정락복㊶ ▲정희숙㊶ ▲조송희㊾
▲조승희㊸ ▲조영호㊹ ▲최성희㊹
▲최윤규㊿ ▲최정림㊷ ▲홍경희㊽

◇醫科大學

▲강대희㊼ ▲고영채㊿ ▲김상욱㊽
▲김소연㊿ ▲김수웅㊽ ▲김용식㊽
▲김용일㊶ ▲김재중㊸ ▲김정곤㊹
▲김정구㊻ ▲김진천㊿ ▲노명덕㊻
▲박상홍㊿ ▲박주배㊹ ▲백종일㊾
▲서국희㊺ ▲송영욱㊿ ▲신상철㊸
▲심동원㊼ ▲안영모㊼ ▲안재용㊿
▲이동환㊸ ▲전지일㊺ ▲최영민㊿
▲한부경㊾ ▲한재진㊹ ▲한홍모㊶

◇齒科大學

▲강신우㊸ ▲김경진㊹ ▲김미자㊺
▲김수남㊻ ▲김종훈㊸ ▲김중수㊷
▲김진수㊶ ▲남승우㊾ ▲남일우㊷
▲박명종㊺ ▲박재간㊺ ▲박종훈㊹
▲손우성㊶ ▲송철규㊹ ▲안성모㊹
▲여금수㊿ ▲오창민㊿ ▲유영아㊾
▲윤영준㊻ ▲이상봉㊼ ▲이영훈㊹
▲이원복㊽ ▲이재호㊿ ▲이점식㊽
▲이해철㊶ ▲임달수㊽ ▲임종호㊽
▲임창윤㊶ ▲장익태㊷ ▲장택구㊺
▲전동균㊻ ▲정승영㊹ ▲정태연㊿
▲정하익㊿ ▲조영호㊶ ▲조효선㊻
▲주영숙㊾ ▲최남섭㊾ ▲최병건㊾
▲한남수㊼ ▲한수엽㊻ ▲한택동㊽
▲홍성팔㊽ ▲홍순룡㊷ ▲황해순㊷

◇大學院

▲고석찬㊶ ▲곽동석㊻ ▲권덕주㊶
▲김금희㊾ ▲김송득㊸ ▲김종하㊸
▲김한호㊻ ▲나가르머㊷ ▲나일수㊿
▲민상렬㊺ ▲손동익㊼ ▲송현석㊽
▲윤경현㊹ ▲윤옥경㊺ ▲이건수㊶
▲이남인㊸ ▲이명호㊽ ▲이영하㊻
▲이태주㊶ ▲임동규㊺ ▲장동주㊶
▲전병환㊿ ▲정영수㊿ ▲지병천㊹
▲지충수㊼ ▲최인수㊺ ▲최천석㊼
▲황영호㊶

◇經營大學院

▲김영석㊹ ▲김태환㊿ ▲손영수㊷
▲이기화㊹

◇敎育大學院

▲최관경㊺

◇保健大學院

▲곽상빈㊶ ▲김윤주㊷ ▲민병찬㊼
▲박대근㊺ ▲박승보㊽ ▲전태윤㊼
▲정상조㊾ ▲지상구㊿ ▲홍숙현㊺
▲홍인표㊻

◇司法大學院

▲최장락㊼

◇新聞大學院

▲강용우㊸ ▲김시복㊿ ▲박찬순㊷
▲변정민㊼ ▲이요섭㊾

◇行政大學院

▲공천오㊾ ▲김세호㊺ ▲김수곤㊺
▲김용길㊽ ▲박삼규㊿ ▲박종옥㊿
▲서성원㊺ ▲손태원㊼ ▲이창하㊷
▲허성두㊸

◇環境大學院

▲고성하㊼ ▲송장복㊾ ▲우명규㊻
▲이장수㊹ ▲진영훈㊷ ▲한희동㊻
▲황길연㊼

◇최고경영자과정

▲강해강㉝ ▲강희조㉖ ▲고무송⑳
▲김상철㊽ ▲김석연⑨ ▲김성용⑩
▲김영수㊻ ▲김준웅㉜ ▲김천식㉗
▲김치곤⑦ ▲김태술㊾ ▲김항구㊵
▲라종억㊽ ▲박순석㊳ ▲박순효㉓
▲박엽래㉟ ▲박은숙㊶ ▲박재승㊵
▲박희규㊽ ▲백민섭㊿ ▲서경석㊷
▲송운한㊶ ▲안음수㊺ ▲안치한㉛
▲유병봉⑧ ▲이건영⑱ ▲이근호㉑
▲이상갑㉕ ▲이성호㉕ ▲이유신㉜
▲이종근㊵ ▲이한우㉛ ▲이훈동②
▲이희섭⑰ ▲장윤태⑥ ▲전상배㊷
▲정형택⑥ ▲최정헌⑤ ▲한용외㊴

분 담 금

◇밴쿠버지부 : 361,870원

◇중외제약지부 : 580,000원

〈지면관계로 최고산업전략과정, 국가정책과정, 고급금융과정,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가정간호수습과정,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보건의료정책관리자과정 회비 납부하신 분은 다음 호에 게재〉

합 계 : 41,621,870원
입회비 : 30,000원
총 계 : 552,690,168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1년 11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김규하㊶

◇社會科學大學

▲권대진㊽ ▲김신근㊹ ▲김위생㊼
▲나영빈㊺

◇自然科學大學

▲김남훈㊿ ▲서환수㊿

◇家政大學

▲나미주㊽

◇看護大學

▲유영희㊾

◇經營大學

▲김명진㊺

◇工科大學

▲고성남㊽ ▲김희범㊺ ▲나영국㊼
▲이정주㊾ ▲전규선㊹

◇農科大學

▲강정구㊹ ▲박형수㊾ ▲여경구㊺
▲전지영㊼ ▲정훈기㊽

◇文理科大學

▲김선회㊷

◇美術大學

▲김용환㊷ ▲윤우식㊾

◇師範大學

▲강호철㊸ ▲이태훈㊾

◇藥學大學

▲조남주㊺

◇大學院

▲이명수㊿

동문의 소리

다양한 인재양성 방법 없을까

方錫基(70년 文理大卒)경신고등학교 교장

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봄부터 지금까지 일선교육현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나의 한 평생을 후진 양성을 위한 교육에 몸바쳤으며 나름대로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고등학교 교장으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학교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지만 역시 교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던 평교사 시절이 더욱 생각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적어도 모교만이라도 혁신적인 입시제도를 개발, 시행했으면…"

전국의 수많은 고등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은 오로지 서울대에 진학하는 것이 최대의 꿈이다.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는 최고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에 응시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그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들을 볼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는 것은 웬일일까? 학교현장에서 볼 때 비록 학과 성적은 저들보다 조금 못하지만 정말로 그 인간됨과 창의력과 지도력 등이 월등한 학생들도 많은데 현행 입시 제도는 학과 성적이 최우선일 수밖에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새 천년의 시대에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인물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그 사회와 국가도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 정말로 이 사회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인재양성책을 개발할 수는 없는가. 적어도 서울대만이라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걸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인 입시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가 생각해본다.

만일 그러한 인재를 선발하여 특별교육을 시킨다면 그들이 이 사회에 나아가서 보다 많은 분야에서 능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물론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어리석은 생각일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다양한 선발 방법을 개발한다면 장차 서울대 졸업생은 좀 편중된 분야에만 몰려 있는 오늘의 현실보다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앞장서 나가는 사회의 일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혼자만 갖고 있던 안타까운 마음을 이 기회에 몇 자 적어본다.

산교육 제공하는 대학이 되기를

金 雋(86년 自然大卒)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언 우리 나라가 우주개발국가 대열에 들어선지도 10년이 되어간다. 『우리가 무슨 우주개발을…』 하며 냉소를 보내던 국민들도 90년대 초 우리별과 과학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궁화위성과 아리랑위성 등 우주개발 활동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5년까지 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20기의 인공위성을 국산 우주발사체로 발사하겠다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1년 1월, 정부는 전라남도 외나로도에 우주센터를 건설하고, 2005년까지 우리 땅에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발사하겠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실,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35년이나 뒤지는 꼴이 된다.

우리 나라 경제규모에 비해 뒤늦은 감도 있지만, 우주개발 계획에 있어 대학에서 해야할 역할은 무엇일까? 물론 인재 양성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각 학과의 교과서적인 교육보다는, 거시적으로 체계를 볼 수 있는 폭넓은 교육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로 학제간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현재까지 대학 내에 이러한 제도들이 있기는 하지만, 유독 우주개발분야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다. 우주개발은 항공우주공학 외에도 공학 및 자연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필요로 한다. 그만큼 우주개발은 산업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갖는다. 그간 우리의 대학교육은 거의 한 학과 내에서 이루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학원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요즘의 학부제나 대학원 협동과정이 지난 학과중심 시절의 교육과 연구환경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척 궁금해진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학제간 프로그램은 단일학부간의 차원을 넘어 자연과학과 공과대학간의 공동연구, 그리고 두 학과간의 협력만이 아닌 다수 학과간의 협력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위성의 지구탐사 탑재체 개발을 위한 항공우주공학-지구환경과학-전자공학-기계공학 등을 포함하는 협력프로그램 등 현실적인 분야에 대해 두루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제간 프로그램에 교수와 학생, 시설들을 할애하고, 예산도 별도로 확보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이는 비단 우주개발에만 한정되어 있는 소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우리 동문들이 사회에 나와 느끼는 바일 것이다. 대학교육은, 특히 이공계의 경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산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교과서적인 교육보다는 거시적으로 체계를 볼 수 있는 폭넓은 교육 필요"

환자들과 함께 해온 값진 시간들

金志玆(1기 CHCN)삼성의료원 가정간호사

하늘이 잔뜩 흐린 게 곧 무엇이라도 내릴 것 같은 날씨다. 출근 전 들었던 일기예보에선 올해 들어 처음으로 눈 같은 눈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장담했는데 왠지 비가 올 것만 같다. 오늘 아침도 방문스케줄을 확인하는 것부터 나의 일과는 시작되었다.

맨 처음 방문할 집은 유방암으로 지금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다. 전직이 약사였던 이 환자는 늘 혼자서 절제된 모습으로 나를 맞이한다. 다섯 번째 방문이지만 묻기 전에는 결코 먼저 말을 꺼내시는 법이 없고, 흔히 암환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감정의 기복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집안에 도는 적막함과 환자의 얼굴에 드리워진 검은 낯빛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활력증후를 체크하고 영양상태 및 불편감 여부와 정도를 사정한 후 정성스레 상처를 소독했다. 두 눈을 꼭 감고 나에게 몸을 맡기고 계신 환자 분의 숨소리가 오늘은 유난히 내게 크게 전해졌다. 그 순간 2000년 10월 같은 병명으로 삶을 마감한 40대의 환자 한 분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3년간을 한결같이 방문했던 환자였다. 본인의 건강문제는 물론이고 얘들 교육문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집안 내 갖가지 행사까지 함께 상의하고 얘기해주시던 분이셨다. 늘 희망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셨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시키기 어려웠던 분이셨다. 인공호흡기를 달고 죽음의 문턱에서 있던 그 순간까지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분이셨다. 난 그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해나갔다. 환자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굳게 닫혔던 입이 열리면서 그간 마음 속에 꼭꼭 쌓아둔 응어리진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내게 그것은 곧 희망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정간호사로 일한 지 어느덧 8년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8년이란 시간은 많은 환자들과 희노애락(喜怒哀樂)을 함께 한 정말 값진 시간들이었다.

가정간호는 전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장기간호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예방적, 지지적, 치료적 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문제를 가진 환자와 그 가족이 가정에서 스스로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비롯해 말기 암환자,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사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기동성 장애자 및 각종 만성질환자까지 그간 만났던 환자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병마와 고통으로 얼룩진 환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방문을 했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유독 마음에 많이 남는 환자도 이제 꽤 여럿이다. 의사의 처방에 의한 치료가 주된 방문의 목적이지만 환자들은 그저 가정간호사가 와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계획된 치료가 끝났음에도 계속적인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야간이나 휴일방문도 감수해야 하지만 그래도 가정방문을 해서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얼마든지 다행스런 일이다.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난 환자들에게 베푸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건 나의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하고 가끔 흐트러지는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난 오늘도 기도한다. 병마와 고통으로 얼룩지고 응어리진 환자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따뜻함과 지혜를 주십사하고… 그리고 소망한다.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빛이기를…